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안전보건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조심조심 코리아

05

vol. 261 2011 May

Special Report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산재예방 달인

– 대구도시철도공사 박순환 안전관리자

KOSHA

www.kosha.or.kr

HAPPY FEELING 행복 느낌

글 김현지

어딜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 많은지 주말마다 아빠를 보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것이 많은지 하루 종일 엄마에게 묻는다.
그리고 또 뭐가 그렇게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지
조잘조잘 떠드는 모습이 그저 사랑스럽기만 하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당신의 따뜻한 손과 마음으로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독자의 소리

〈안전보건〉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안전보건〉을 읽으신 후 느낀 소감을 독자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2011.04_ 8p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퍼져있는 때에 '원자력 공포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 기사가 시기적절했다는 생각입니다. 방사능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고, 특히 방사능 피폭시 증상과 대처법이 유익했습니다. 사업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홍성걸(충북 제천시 남천동)

2011.04_ 42p

안충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기사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 활동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상하관계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통해 서로가 내 형, 내 동생, 내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 안전도 더 단단하고 끈끈하게 실천된다는 말이 오래 묵은 향기처럼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강현숙(인천시 연수구 연수3동)

2011.04_ 60p

'기본을 지켜야 안전이 지켜진다'를 읽고 정말 사고는 우연히, 우발적으로,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발생해 의외로 큰 피해와 손실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비스재해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넘어지는 사고인데 근로자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통로의 위험물이나 장애물을 제거하고 안전한 통로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박수흠(부산시 북구 화명3동)

2011.04_ 72p

안전보건 Focus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고 유해위험방지의 필요성과 절차 및 대상사업장 심사과정 등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안전관리자로서 배워가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권오현(전남 통영시 도남동)

Contents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안전보건 2011년 5월호 제23권 제5호(통권 261호)

발행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인 노민기
기획편집 교육미디어실
편집위원 박동기, 이지현, 박남규, 김일수, 김종윤, 김증호, 이주영, 유호진, 박태순, 서규성, 윤권일, 장석철, 이현경
담당 한성주(h97012@kosha.net) 032-5100-682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 34-4)
홈페이지 www.kosha.or.kr
제작 및 편집디자인 대통기획 02-516-3614
사진 e-cube 스튜디오
인쇄 두산동아(주) 안산공장 031-489-7842

⊙ 월간〈안전보건〉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위시 매거진'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3 **독자의 소리**
06 Issue & Focus
08 Special Report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 감정 충돌로 멍드는 가슴
–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대책
– 뉴코아아울렛 부천점 '웃음클럽'
– 우리회사 주치의 '근로자건강센터'

생각 더하기

22 **화제의 현장**
태국 송끄란 축제에 안전보건 미디어 지원활동 전개
24 **산재예방 달인**
대구도시철도공사 박순환 안전관리자
28 **통계로 보는 안전보건**
작년 넘어짐으로 인한 재해자 21,242명
30 **안전보건 초대석**
서울지방노동청 이성기 총장
32 **직업열전**
도미노피자 여의도점 김동우 점장

36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
건설용리프트 안전

실천 곱하기

42 **화제의 명예감독관**
(주)동국제강 부산공장 박현민 명예감독관

46 **생활안전 플러스**
콘택트렌즈 100% 안전하게 사용하기

48 **무재해 실천일지**
두산건설(주)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건설현장

52 **건강 365**
봄의 불청객 '황사' 주의보!

54 **함께 배우는 스트레칭**
도장 작업 근로자를 위한 스트레칭

56 **건설업 중대재해사례**
백호우에서 떨어진 엄지말뚝에 깔려 사망

58 **제조업 중대재해사례**
천장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던 항온장치가 뒤집히며 사망

60 **서비스업 중대재해사례**
청소차량 투입구 작업대에서 추락해 사망

느낌 나누기

Theme Story – 어린이 안전

64 **Theme Keyword**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 '안전'

66 **Theme Interview**
안전실천시민연합 어머니안전지도자회 윤영미

68 **Theme Touch**
유형별 어린이 안전사고

70 **Theme Plus**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관

72 **안전보건 Focus**
청소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관련 법안 통과

74 **KOSHA CODE**

76 **지구촌 안전보건**

78 **KOSHA NEWS**

80 **안전인증현황**
2011년도 3월 의무안전인증 현황

82 **KOSHA info & 독자퀴즈**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제5차 국내위원회 개최'

서울선언 확산 위해 국제 활동 참여방안 논의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사진 맨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참석자들이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의 확산을 다짐하고 있다.

ISSU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지난 4월 20일 국내 안전보건관련 노 · 사 · 정 대표기관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국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실행 국내위원회' 는 2009년 4월 최초의 국제적 안전보건 헌장인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의 확산을 위해 마련된 협의체로 노민기 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업장 대표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채택 후 3년간의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국내 안전보건전문기관의 국제 활동 참여를 통한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의 확산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국내 안전보건전문기관의 국제 활동에 대한 참여방안으로 올해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의 '서울선언' 확산 방안이 제안됐으며, 공단이 의장기관인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재해예방특별위원회' 에 국내 기관이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 역시 이루어졌다.

이날 공단 관계자는 "국내 노 · 사 · 정이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의 의미를 살려 산재예방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업장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서울선언' 의 의미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성 암' 특강 실시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 엘리자베스 베이뇨 교수 초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회의실에서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 엘리자베스 베이뇨 교수가 '북유럽 직업성 암 연구현황'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FOCUS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강성규)은 지난 4월 22일 직업성 암 연구 분야의 대가인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의 엘리자비테 바이더패스 베이뇨 교수를 초빙해 '북유럽 직업성 암 연구현황' 이란 주제로 특별강의를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최근 국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업성 암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직업성 암 연구 수준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베이뇨 교수는 직업성 암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과 함께 우간다 등 여러 개발도상국의 암 연구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건강과 암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로 관련 학계에서 세계적인 직업성 암 연구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베이뇨 교수는 현재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및 노르웨이 트롬소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에 있으며, 지난 1999년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에서 직업성 암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설립한 국제 암연구기구(IARC)에서 연구원으로도 활동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3년에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이 처음으로 직업성 암으로 보상받은 후, 근로자의 직업성 암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 석면, 벤젠 등 직업성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Special Report

웃음 뒤에 감춰진 눈물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속으로는 눈물이 나도 웃어야 하는 직업이 있다? 바로 감정노동자들의 일상이다. 이름마저 생소한 감정노동은 배우가 연기하듯 근로자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고객의 감정을 맞추는 일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감정노동자라고 부르며, 대부분 고객을 대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서비스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러한 감정노동자들은 감정의 부조화에 따른 우울증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다른 어떤 직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호 Special Report에서는 감정노동자의 비애를 통해 그들의 스트레스 원인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질병 그리고 예방대책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 유성원

Emotional Labor

● **감정노동** 직접 고객을 대하며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특정한 감정 상태를 연출하는 것이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 유형이다. 대표적인 직종으로 할인점, 백화점 등의 판매원, 레스토랑, 호텔 등의 종업원, 은행원, 승무원 등이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실드가 1983년 '감정노동(The Managed Heart)' 이라는 책에서 처음 거론한 개념이다.

글 유성원 도움말 정진주 | 이화여대 교수

감정 충돌로 멍드는 가슴

감정노동자들의 비애

감정 노동자들이 보여주는 미소 뒤에는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통이 숨어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화를 내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보상을 바라는 고객은 물론, 모욕적인 언사에 성희롱까지 하는 예도 있다. 영화 속 감정노동자들의 모습을 통해 이런 고통조차 가슴에 묻고 감정을 억누른 채 미소로 고객을 맞아야 하는 감정노동자들의 비애를 소개한다.

영화 〈핸드폰〉의 한 장면

Emotional Labor

영화를 통해 본 감정노동자의 일상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찾는 대형 마트. 영화 〈핸드폰〉 속 박용우는 대형마트에서 친절 사원으로 뽑힐 정도로 성실한 직원이다. 한 번 쓴 물건을 뻔뻔하게 환불하는 아주머니, 밑도 끝도 없이 직원부터 야단치는 몰지각한 아저씨까지. 뺨을 맞더라도 고객이 '진상'을 부리더라도 그는 웃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고객을 상대한다. 고객들 앞에서 항상 웃으며 "고객님, 죄송합니다"를 말하지만, 억눌린 감정 때문에 그도 미쳐버리기 직전이다.

노처녀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코믹하고 로맨틱하게 그려낸 영화 〈싱글즈〉. 극 중 나난으로 등장하는 장진영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감정노동자인 레스토랑 매니저로 일하게 된다. 매일같이 그녀에게 들어오는 컴플레인과 웃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선사해야 하는 일에 그녀는 지쳐간다.

중년 아저씨들의 꿈을 다룬 영화 〈즐거운 인생〉. 해체된 락밴드 활화산의 베이스를 맡았던 김윤석, 그는 잘나가던 대기업 직장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가족 몰래 낮에는 퀵서비스,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한다. 자기 조카뻘 되는 젊은이에게 욕설을 들어가면서도 화를 참으며 괴로워한다.

서비스직 종사자 10명 중 2.7명 우울증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일을 하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민간 서비스 노동자 삶의 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직 종사자 3,096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후유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는 이들이 26.6%나 됐다. 감정노동자 10명 중 2.7명이 우울증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징계 해직자 중 우울증 환자 비율(28.5%)과 비슷하고, 온종일 운전을 하는 버스 기사(13.3%)보다는 2배나 많은 것이다.

국내 서비스산업 종사자는 1980년 506만 5,000명에서 2009년에는 1,618만 3,000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의 확대는 감정노동 후유증 증세를 보이는 노동자들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감정의 부조화가 가장 큰 원인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서비스산업의 독특한 특성에서 기인한다. 고객과 대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감정과 노동자로서의 감정 사이에 발생하는 부조화 탓에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서비스 산업의 갑작스러운 발달로 인해 '고객은 왕'이라는 왜곡된 서비스 문화가 한몫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무조건적인 친절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고객 제일주의가 과잉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을 양산하게 됐고, 소비자들의 과도한 서비스 요구가 감정노동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더욱 커지게 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확산과 열악한 지위, 근무 환경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비스 직종의 비정규직과 여성 노동자 비율이 확대될수록 감정노동 후유증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진주 이화여대 교수는 "고객과 서비스 노동자가 서로 적절한 예의를 지키는 소비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며 "이럴 때 소비자는 구매에서 더 정확한 정보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노동자는 보다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유성원 도움말 김은정 임상심리사 | 근로자건강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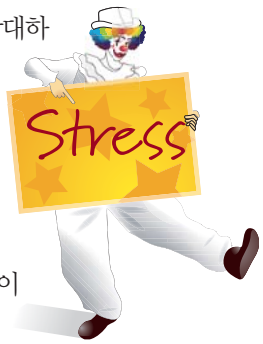
웃음 뒤에 감춰진 눈물 돌봐야 할 때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대책

감정노동자들은 어떻게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까? 안타깝게도 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정신과 상담을 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마음의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서 이에 대한 예방책을 살펴보자.

감정 해소 못하면 심각한 질병 일으켜

감정노동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채 억압된 감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갖가지 질병은 물론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우울증과 불면증을 꼽을 수 있다. 흥분과 화를 억제하며 수십, 수백 명의 고객을 미소로 상대하다 보면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또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만성피로, 소화불량, 두통, 무기력감 등 화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고객 앞에서는 지나치게 친절하게 행동하면서도 가족이나 친구 등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나



짜증을 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와 함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되풀이 되다 보면 신경증적 정신장애의 일종인 공황장애를 일으키거나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갑자기 참았던 감정이 폭발되며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에 대한 자긍심 가져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억제된 감정을 쌓아놓지 말고 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감정을 돌보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요가와 사우나를 하며 친구와 수다로 직장 속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땀과 함께 분출하는 〈싱글즈〉의 주인공들처럼 운동이나 수다로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스트레스와 함께 마시는 술은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후의 과다한 음주나 흡연은 피해야 한다.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표출하는 〈즐거운 인생〉의 주인공들처럼 취미 활동 등으로 정서적 재충전을 하는 것도 좋다. 간단하게는 심호흡, 스트레칭, 적당한 공간에서의 소리 지르기 등도 분노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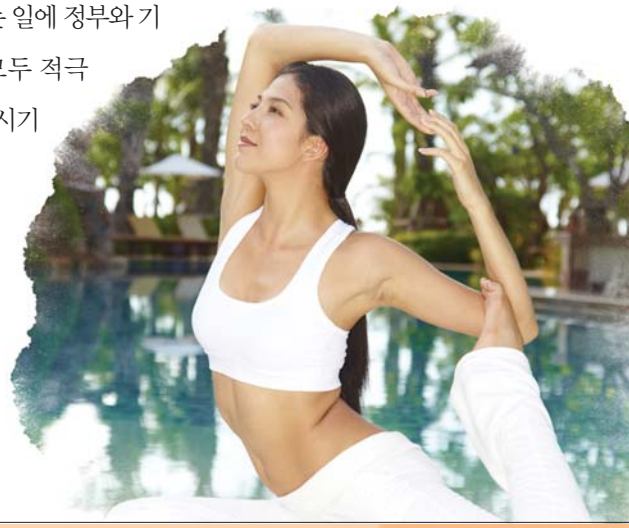
근로자건강센터 김은정 임상심리사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상이 와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혼자 속으로만 삭이다가 증세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스스로 자기감정을 돌보는 노력과 함께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식변화와 제도적 대책 필요

우리나라 경제는 그동안 고속 성장에 힘입어 제조 · 생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됐다. 특히 국내 서비스산업 종사자는 계속 증가추세이다. 하지만 서비스직종 감정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인식이나 제도적인 정책은 소홀하다. 때문에 감정노동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들 역시 친절 강화 교육이나 모니터링 제도 등 서비스 매뉴얼 개발을 통해 감정노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반면 종업원의 정신건강을 고려한 심리상담 서비스 등은 외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 역시 올바른 서비스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도한 서비스 요구가 감정노동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일으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직종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개인의 일로 치부하기보다는 '감정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 적극적으로 나설 시기이다.



TIP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간단한 스트레칭

손가락 펼치기 손가락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10초 동안 손가락을 쫙 편다. 이어서 관절을 모두 쓴다는 느낌으로 10초간 손가락을 구부린다. 다시 한 번 반복한다.

팔목 비틀기 가슴 앞에서 두 손을 깍지 끼고 팔목을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10번 돌린다. 반대 방향으로도 10번 반복한다.

팔 뒤로 당기며 고개 젖히기 왼팔을 등 뒤로 늘어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왼쪽 팔목을 잡아당긴다. 동시에 고개는 오른쪽으로 기울여 10초간 버티고 반대쪽도 반복한다.

어깨 으쓱하기 목과 어깨가 당기는 것을 느끼면서 양 어깨를 위쪽으로 끌어올린다. 그 상태에서 3~5초간 버티고 이완한다.

머리 뒤로 깍지 끼고 가슴 펴기 머리 뒤로 두 손을 깍지 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다. 두 팔이 평행이 되도록 양 팔꿈치를 뒤로 밀며 가슴을 편 상태로 5초간 유지한다.

글 유성원 사진 안기성 | e-cube 스튜디오

행복한 '진짜 웃음'으로 스트레스 날려요~

뉴코아 아울렛 부천점 '웃음클럽'

뉴코아아울렛 부천점 4층 교육장이 시끌벅적하다. 안을 들여다보니 빙 둘러앉은 매장 직원들이 서로 마주보며 한바탕 신나게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한창 바쁠 시간에 직원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4주만 지나면 누구나 스마일~

"피곤한 월요일 오후,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웃으시며 칭찬해주세요."

"당신은 탁월하십니다~" "하하하"

점심을 먹고 한창 졸음이 쏟아질 만한 오후 2시. 반짝이 재킷을 입은 문은주 간호사와 동그랗게 둘러앉은 30여명의 직원들이 함박웃음을 터뜨리며 서로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이어 전문 강사의 웃음특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커진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는 이곳은 뉴코아아울렛 부천점만의 독특한 직원 건강 보호 프로그램인 '웃음 클럽'. 유통점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 이를 줄여보기 위해 시작했다고. 실제로 2006년 11월 부천점에 앞서 오픈한 인천점 정 직원 71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한 결과

스트레스 정도가 5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으며, 35.2%는 우울증상을 호소하기까지 했다. 인천점에서 웃음클럽을 비롯해 다양한 건강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한기남 지점장이 문은주 간호사와 함께 부천점으로 부임하면서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다.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웃음클럽은 한 기수에 두 팀이 운영되며, 각각 일주일에 1번 8주 동안 받게 된다. 현재 3기가 운영 중이며 보통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3~40명의 직원이 한 팀이 된다. 문은주 간호사는 웃음클럽을 거쳐 간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홍보할 정도로 직원들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무표정으로 팔짱만 끼고 있거나 억지로 웃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서로 간의 스킨십 동작 등을 통해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죠. 4주차가 되면 그제 서야 얼굴에 '진짜 웃음' 이 조금씩 퍼지면서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행복한 웃음

웃음클럽을 거쳐 간 직원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 일을 즐기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다. 매일 고객한테 일방적으로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우울했다던 직원도 웃음클럽을 거치면서 달라진다. 이제는 동료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면 먼저 달려가 '우리 자신을 위해 웃자' 고 이야기해줄 정도로 변한다고. 이날 웃음클럽에 참여한 식품수입담당 코너의 하미라 씨 역시 "무엇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고 적극성이 많이 생겼다"며 "웃음클럽을 통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삶에 대한 활력을 얻었다"고 즐거워했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니 회사 매출도 덩달아 올라갔다. 작년 뉴코아아울렛 부천점 매출 역시 큰 폭으로 성장했다. 서비스업의 특성상 직원에 대한 이런 투자가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하지만 이런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실제 다른 현장에서 웃음클럽과 같은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있어도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업무의 특성상 내 감정은 슬프더라도 매뉴얼대로 고객을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는 게 노동이 되는 셈이죠. 이제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가짜 웃음' 이 아닌 '진짜 웃음' 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웃음클럽 같은 프로그램이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문은주 간호사의 말처럼 이곳에 일하는 모든 직원, 아니 서비스 업종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진짜 웃음' 을 찾을 때까지 뉴코아아울렛 부천점의 웃음클럽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글 유성원 사진 기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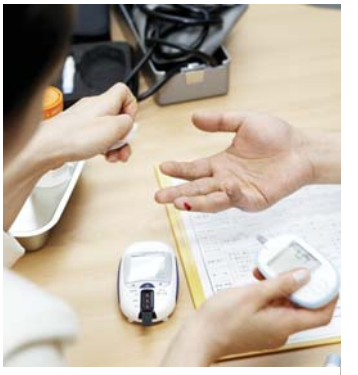
이용은 '무료' 의료서비스는 '최고'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체험기

최근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회사를 대신해 챙겨주는 '근로자건강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대학병원과 협력해 4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인천, 시흥, 전남 광주 등 세 곳에서 시작된 것. 이 중 인천 지역 근로자를 돌보기 위해 나선 인천 근로자건강센터를 사보 기자가 직접 체험해 보았다.

14:00 근로자건강센터에 들어서자 간호사가 근로자 건강관리 카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준 뒤 안내해주고 있다.

14:15 접수를 마친 뒤 첫 검사인 기초체력검사를 받고 있다. 키, 몸무게, 비만도 등을 바로 알 수 있다.



14:20 혈액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를 통해 뇌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유무를 알 수 있다.

14:30 기초 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 건강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 휴식 공간

지난 4월 12일 인천 근로자건강센터를 찾았다.

우선 입구부터가 호텔 로비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든다. 시끌벅적한 대학병원의 느낌이 아닌 피곤할 때 쉬고 싶은 의무실에 들어선 느낌이다.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건강관리 카드를 작성했다.

건강관리 카드 작성을 마친 뒤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 등을 측정하는 기초 체력 검사가 진행됐고 혈액검사가 이어졌다. 혈액검사는 혈당, 혈압, 지질(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검사를 통해 뇌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유무를 알 수 있다. 기초 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자세한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스트레스부터 신체 불균형까지 잡아준다

다음은 심리상담을 받을 차례. 심리상담실에서는 우선 스트레스 측정기를 통해 스트레스 수치부터 피로도까지 5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잠깐의 검사만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수치화되어 나온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스트레스 측정 검사를 바탕으로 심리상담이 진행된다.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면 근골격계, 심장질환, 뇌졸중까지 생기

14:45 스트레스 측정을 받고 있다. 스트레스 지수부터 피로도까지 5분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15:00 근골격계질환 예방 상담실에서는 작업자세 교정부터 개인별 운동처방까지 근골격계질환의 치료와 예방을 해 준다.

14:50 스트레스 측정 검사를 바탕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이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게 된다.

15:30 근무환경 상담실에서는 방독 마스크, 귀마개 등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법 교육부터 근무환경 개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죠. 이곳에서는 성격검사와 개인적인 상담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상담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심리상담 후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상담실을 찾았다. 며칠 전부터 왼쪽 어깨와 목 부분이 뭉쳐 있다고 말하자 물리치료사가 자세를 교정해 준다. 5분 정도 했을 뿐인데 한결 어깨가 가뿐해진다. 자세 교정 뒤에는 운동처방과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근력 강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근무환경상담실을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법 교육부터 근무환경 개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장 특성을 파악해 인간공학적 근무환경에 대해 상담해 준다.

쉼터 같은 편안한 공간

누구나 그렇겠지만 건강검진만큼 마음이 뒤숭숭한 때도 없다. '혹시 검사에서 이상 징후가 나오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부터 앞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 근로자건강센터에 들어섰을 때 이런 걱정이 사라질 정도로 무엇보다 편안함이 느껴졌다. 검사 시작부터 상담까지 한결같이 편안함 속에서 이뤄졌다.

근로자 건강 휴식 공간이자 회사 '의무실' 처럼 언제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 노재훈 센터장의 말에 공감이 갔다. 특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의료시설과 서비스만큼은 어느 병원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최상이어서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MINI iterview

"남동공단에 의무실이 생겼어요!"

노재훈 인천 근로자건강센터장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근로자건강센터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회사를 대신해 챙겨주는 '의무실'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 및 인간공학기사, 물리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8명의 보건 전문가들이 상주 근무하면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모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기업은 회사 내 의무실이 있어서 근로자들이 쉽게 건강상담을 위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병원을 찾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회사 의무실' 같은 신개념의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회사나 개인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로자건강센터의 이용은 무료입니다. 누구든지 오실 수 있으며 희망하는 사업장은 단체 예약 시 출장 상담과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료시간도 연장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경력 많고 실력 있는 분들만 선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듯이 차근차근 운영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 주치의 '근로자건강센터' 문 열어

영세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 등 종합건강서비스 제공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A씨. 일하다 보면 바쁘고 야근도 잦아 가끔 몸의 불편함을 느껴도 시간을 내어 병원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재해는 10명 중 6명(7,803명 중 4,817명)이 A씨와 같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이들 5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하면서 불편했던 건강상 문제나 스트레스의 상담 등을 회사 근처에서 무료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4월 12일 남동산업단지(인천 소재)를 시작으로 20일 시화산업단지(시흥 소재), 22일 하남산업단지(광주 소재) 등 3개 영세사업장 밀집 공단에 '근로자 건강센터'가 본격 운영됐다. 이들 근로자건강센터는 이 지역의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센터는 지역 내 기반을 둔 대학병원의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등이 상주하며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건강 · 질병 상담, 직무스트레스 및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질환의 예방 등 각종 업무상 질병 예방과 관련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업종의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며 주말에도 필요시 문을 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바쁜 근로자들이 퇴근 이후에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사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을 받아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올해 3개소를 시범 운영한 후 2015년까지 2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4월 12일 인천 근로자 건강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민기 이사장은 "전액 무료 서비스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했다"며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근로자 건강센터가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각 지역마다 생겼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www.icwhc.or.kr 1588-6497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www.gswhc.or.kr 1577-6497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www.gjwhc.or.kr 1599-6497

www.moel.go.kr

위험에는 옐로카드가 없습니다

2011년 5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태료 부과대상에 한함)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위험을 방치하면 안전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예방 최우선의 자율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고자
2011년 5월 19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석면 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이나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등
-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고용노동부

Thinking

생각 더하기

22 화제의 현장
24 산재예방 달인
28 통계로 보는 안전보건
30 안전보건 초대석
32 직업열전
36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

'안전의 수호천사' 안전관리자가 지켜야 할 수칙

- **순간의 방심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모두가 조심을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다. 다시 습관적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사고가 일어난다. 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때문에 한 순간의 방심도 있을 수 없다.
- **안전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전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안전제일의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귀를 열어둬라** 아무리 좋은 안전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작업자들이 안전을 얘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글 김현지 사진 안기성 | e-cube 스튜디오

사와디캅! 안전하세요~

태국 송끄란 축제에 안전보건 미디어 지원활동 전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태국 송끄란 축제'에 참여해 교육미디어실에서 개발한 안전보건 미디어와 홍보용품을 배포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기분 좋게 불어오는 봄바람 속에서 태국 근로자들에게 안전바람을 전해준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가 봤다.

"사와디캅(안녕하세요)"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지난 4월 1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은 경기도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열렸던 '태국 송끄란 축제'에 참여해 태국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미디어와 홍보 용품을 지원하는 등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펼쳤다.

이번에 제공된 태국인 근로자 안전보건미디어는 제조업과 건설업 2종으로, 태국 근로자들이 산재예방에 대해 알기 쉽도록 태국어로 정리해 놓은 자료다. 위험작업 및 기계 · 설비의 안전준수 요령, 공종별 중대재해 사례, 위험성 평가 및 단계별 수행방법 등 태국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기록돼 있다. 이날 축제에서 박동기 교육미디어실장 등 10명의 공단 관계자가 태국 근로자들에게 직접 안전보건미디어와 홍보 용품을 배포하면서 외국인 안전보건 교육 관련 상담 등을 함께 진행했다. 많은 태국 근로자들이 공단의 안전보건 미디어 지원활동에 관심을 보였고, 즐거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연스레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이번 안산에서 개최된 송끄란 축제는 태국의 송끄란일을 기념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올해는 주한태국대사관과 안산시가 주관하여 8,000여 명의 태국인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코타이 전통무용, 송끄란 미인대회, 무에타이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져 누구나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태국 송끄란 축제란?

매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축제로 태국력(曆)으로 정월 초하루인 4월 13일을 기념해서 열린다. 송끄란(Songkran)은 산스크리트어(語)에서 유래한 말로 '이동', '장소 변경'을 뜻하며, 이날 태양의 위치가 바뀐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축복을 기원하는 뜻으로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놀이가 유명해 일명 '물의 축제'라고도 불린다. 축제 기간 동안 행인들끼리 물뿌리기, 미스 송끄란 선발대회, 음식축제, 전통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글 이환길 사진 안기성 | e-cube스튜디오

안전열정
첫차부터 막차까지 힘차게 달려라!

대구도시철도공사 박순환 안전관리자

박순환 안전관리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생각하고 확인하고 실천하며 100% 견고한 안전을 만들어간다. 울퉁불퉁 위험 요소에 단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오로지 안전으로만 빚은 매끈한 철로 위로 오늘도 대구 지하철은 힘차게 달린다.

아침부터 달리는 안전 열정

아침 8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종합관제소로 들어선다. 관제소 직원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몇 번이고 사고 기록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내 밝아진 얼굴로 관제소를 나온다.

"어제도 큰 사고는 없었네요. 하지만, 오늘을 또 주시해야죠. 사고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커피 한 잔 마시지 못하고 출근하자마자 안전사고부터 걱정하는 이 남자,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안전 박사 박순환 안전관리자이다. 매일 출근과 동시에 종합관제소에 들러 어제 일어난 사건 ·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아침 회의 시 직원들과 공유하고 교육한다. 또, 수시로 역사 내 기계 작업 공간을 찾아가 몇 번이고 문제가 있는지 재차 확인한다.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문제를 찾고 교육하고 요구하고 다시 이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마치 숨은 문제 찾기라도 하듯 온종일 문제를 찾는 데에만 혈안인 그는 직원들에겐 시어머니 같은 대상일 테다.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트집을 잡듯 연이은 잔소리가 싫기도 할 텐데 직원들은 거리낌 없이 그의 지적에 바로바로 문제를 처리하며 오히려 그를 응원하고 있다. 괜한 잔소리가 아닌 '안전'을 위한 잔소리이기에 사소한 지적조차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100% 안전을 목표로 합니다. 99% 안전은 필요 없습니다. 1%라도 위험요소가 있다면 언제고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 1%를 찾아내는 게 제 일입니다."

안전 프로그램으로 안전 집중력 향상

직원과 승객의 안전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철도공사의 특성상 안전에 대한 집중력은 그 어느 곳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기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지난 2003년 2월 중앙로역 열차방화 사건을 계기로 대구도시철도공사 내 안전 의식은 더욱 견고해진 상태다.

"교통, 전기, 방화, 테러 등 지하철 안전은 그야말로 종합 안전 예술이죠. 안전에 관한 모든 방법을 연구하고 지속시켜야 합니다."

박순환 안전관리자의 말대로 견고해진 안전 의식을 지속적으로 쌓아올리기 위해선 이를 받쳐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그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과 승객의 안전 확보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 진행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을 도입했고, 매년 2월은 '안전문화 실천의 달'로 지정 · 운영한다.

안전문화 실천의 달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특별교육을 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코레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또 다양한 안전사고 사연을 수집해 '안전수기집'도 발간한다. 대구시민안전체험장으로 전 직원이 '단체안전체험활동'을 떠나기도 하며, '재해사진 전시회'를 열어 안전 의식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은 기존 제조업 위주의 교육 내용에서 탈피해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실


DTRO

정에 적합하도록 맞춤식 자체교육으로 개발 · 전환했다. 관리감독자 교육책자 역시 자체적으로 제작 · 발행하고 있다.

100%의 안전이 전하는 100%의 행복

차량 기지를 방문해 이곳저곳을 확인하던 박순환 안전관리자가 갑자기 기관사 얼굴에 음주측정기를 내민다. 무사통과! 헌데 대낮에 음주측정이라니, 박순환 안전관리자의 황당한 행동에 웃음이 터졌으나 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행하는 '작업 전 종사자 적합성 검사' 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혹시라도 어제 과음한 흔적이 남아 있다면 예비 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말을 잇는다.

"현장 근로자 신체 · 심리 상태가 오늘의 안전 업무에 적합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절대 현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1% 빈틈만 허용해도 사고는 100%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온종일 안전만을 위해 뛰어다니다 보면 싫증이 날만도 한데 짜증 한 번 없이 매 순간 미소로 일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동료와 승객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에 마음이 늘 자부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대구도시철도공사 사훈이 '내가 웃으면 고객이 웃는다' 입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안전에 있고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동종업체 최초로 무재해 목표 5배수를 지난 2010년 7월 달성했고,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표창, 대구광역시장 표창 등 표창도 줄을 잇는다.

안전 습관으로 만들어진 안전전문가

박순환 안전관리자의 안전 사랑은 집으로까지 이어진다. 가스레인지 곁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놓아두고 위험에 대비한다. 또 정리가 안 된 물건이 언제고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정리정돈에 힘쓰기 시작했단다. 덕분에 집안에서도 수년간 무재해 달성의 쾌거(?)를 맛보는 중이라고.

"냉장고 문을 열 때 얼린 고깃덩어리가 떨어져 발등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난떤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전은 유난을 떨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승객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업무인 철도공사 직원 모두가 안전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생활 속에 안전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니만큼 더욱 큰 보람을 찾길 바란다며 동료들에게 파이팅을 전한다.

"동료들이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고 퇴근할 때, 그리고 막차까지 아무 사고 없이 열차 운행이 종료될 때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동료와 승객 모두가 오늘처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언제나 변함없는 제 바람입니다."

100%의 안전을 위해 100%의 열정을 쏟아내는 박순환 안전관리자. 그가 뿜어내는 따끈따끈한 안전 열정은 오늘도 대구 지하철 첫 차부터 막차까지 가득 실려 나가고 있다.

TIP 박순환 안전관리자의 '설마' 버리기 캠페인

'설마' 를 버리면, 안전은 시작됩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에이, 괜찮겠지,' 등등 불행은 내게 오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만이 내 것이고 불행은 타인의 것이다? 천만의 말씀, 착각은 금물!

사고는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대통령이든 노숙자든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닥쳐옵니다. 내게도 위험이 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생활할 때 비로소 안전에 관한 사소한 부분까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줄 아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 사소한 의지가 마침내 우리를 가장 안전한 삶으로 인도해줄 것입니다.

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재해통계분석팀 일러스트 토끼도둑

김연아의 넘어짐은 '고통의 결실' 근로자의 넘어짐은 '무서운 재해'

작년 넘어짐으로 인한 재해자 21,242명

성공을 향한 김연아의 넘어짐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을 빛낸 스타라고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피겨 여자 싱글에서 228.56이라는 경이적인 점수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피겨계의 절대강자로 우뚝 선 은반의 여왕, 김연아 선수가 아닐까 한다.

김연아는 2009년 4대륙 선수권, 세계선수권,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과 올림픽 제패로 국제빙상연맹(ISU)의 4대 국제대회를 모두 석권한 사실상 첫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피겨 스케이트 강국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피겨 세계 랭킹 1위라는 자리에 우뚝 서기까지 김연아 선수가 흘린 땀은 정말이지 어마어마할 것이다.

실제 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김연아 선수는 하루 평균 체력훈련, 지상훈련, 빙상훈련을 포함해 약 12시간을 연습에 매진한다고 한다. 특히 12시간 중 거의 매일 6시간씩은 빙상 위에서 훈련을 하는데, 휴일을 빼면 300일가량을 빙상 위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그녀가 꼭 하는 연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강점인 점프!

만약 하루 평균 최소 30회의 점프를 한다 치자. 그렇게 되면 1년에 9,000회 정도 점프를 하게 되는 셈인데, 거기에 점프 성공률이 80% 선임을 고려하면 1년에 점프하다 넘어지거나 엉덩방아를 찧는 횟수는 자그마치 1,800번이나 된다는 말이 된다. 매일 딱딱한 빙상 위에서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수많은 고통을 참아온 그녀! 그녀 이름 앞에 붙은 '피겨 세계 랭킹 1위'라는 이름표는 바로 이런 고통의 결실이 아니었을까.

다른 사람들도 김연아만큼 넘어진다?

김연아 선수야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 빙판 위에서 넘어짐을 반복했다지만,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들도 평상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일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넘어짐 재해가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넘어짐 재해는 크게 미끄러짐, 걸려 넘어짐, 헛디딤으로 나뉘곤 하는데, 그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재해가 '미끄러짐 재해' 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각종 개그 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이 온몸을 던져 미끄러지고 우당탕 쓰러지며 웃음을 주고 있고, 우리의 김연아 선수 역시 늘 미끄러지고 넘어지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벌떡 일어나 다시 또 경기를 이끌어나가고 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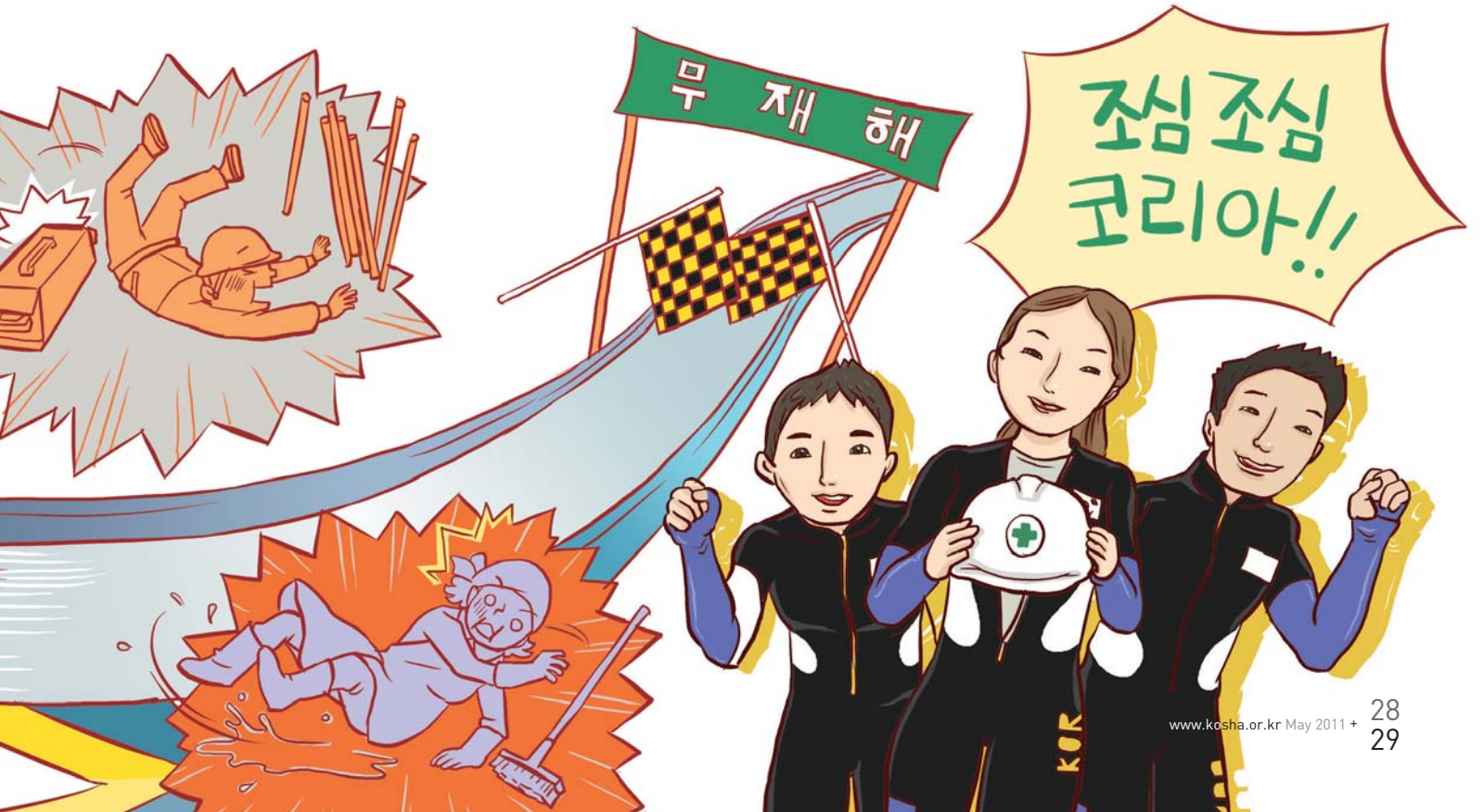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재해가 의외로 큰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재해의 경우, 주변의 위험 요소들로 인해 치명적인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다. 많은 산업 현장 중에서도 서비스업이 넘어짐으로 인한 재해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조사가 됐는데, 특히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 ·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며, 1년 미만의 미숙련 근로자의 재해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규모가 작고 경험이 부족할수록 미끄러짐 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넘어짐으로 인한 재해자 한 해 2만명 넘어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재해로 부상을 입고 고통받고 있다.

특히 2010년 '넘어짐 재해자 발생현황' 만 봐도 전체 재해자수 98,645명 중 넘어짐으로 인한 부상자수는 21,145명이며, 사망자는 97명에 이른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넘어짐 재해가 생각보다 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이다.

미끄러짐은 김연아 선수에겐 최고의 피겨선수가 되기 위한 과정일 수 있고, 많은 개그맨들에겐 시청자들을 웃겨야 하는 개그 소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 요소가 가득한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에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재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 정준영 사진 이명철

사회전반에 안전문화 정착되기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성기 청장

지난 3월 1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피자 3사와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륜차 재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안전배달, 행복배달' 캠페인을 시작한 것.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성기 청장을 만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01 | 서울지역의 주요 사업장 특성 및 재해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무엇보다 서울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서비스업 종사 근로자 비중이 70%에 육박합니다. 전국 평균이 36% 임을 감안할 때 2배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이죠. 재해자 비중으로 봤을 때도 서비스업에서 63%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서울지역 재해율은 0.409%로 전국 평균 재해율인 0.695%보다 40%나 낮습니다. 그런데 유독 건설업에서만큼은 전국 평균보다 10~30%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작은 공사가 다른 여는 지역보다 활발히 일어나다 보니 그만큼 재해발생 가능성도 커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올해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심일터'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이들 두 업종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2 | 방금 말씀하신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심일터' 캠페인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안전보건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374개 노 · 사 · 민 · 정 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안심일터 캠페인은 이런 인식전환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23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심일터 서울지역추진본부'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심일터4U'라는 브랜드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인 사업으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오토바이 배달 사고와 관련해 '안전배달, 행복배달'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국내 대표적인 피자 3사는 물론이고 프랜차이즈협회와도 손을 잡고 안전배달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기업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서울 안전점검의 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서울지역 전 건설현장이 동시에 안심일터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03 | 피자 3사 및 프랜차이즈협회와 이륜차 재해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된 계기나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작년 말에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 배달을 하던 젊은이가 버스와 부딪혀 안타깝게도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위 '30분 배달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30분 배달제'라는 기업의 선언적 전략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안전배달 문화를 추진한다는 약속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면을 빌어 그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피자 3사 대표님과 프랜차이즈협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04 |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안전배달을 위한 기업의 의지표명 차원에서 안전배달 선언문을 매장별로 부착하는 것, 배달통이나 헬멧에 안전배달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 배달원의 보호구 개선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탄력을 받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는 물론이고, 신속배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05 | 안전보건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안전보건은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안전보건, 교통안전, 소방안전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등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안전보건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야 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반은 국민 모두가 안전보건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건강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보호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고용노동부가 중점 추진하는 '안심일터' 캠페인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성이 아닌 우리 사회 안전보건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lee seong ki

profile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LSE 석사(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숭실대 박사(IT 정책경영),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1999년 서울중부지방 노동사무소장, 2000년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참사관, 2004년 혁신기획관, 2008년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2009년 노사정책실 공공노사정책관, 現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글 정준영 사진 이명철

걸음걸음 안전하게 행복한 맛을 전해요

도미노피자 여의도점 김동우 점장

때로 바쁜 날에는 식당까지 오가는 발걸음마저 여의치 않을 때가 있다. 가끔은 동료들과 출출함을 달랠 간식 생각이 간절해지기도 한다. 그럴 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가 다름 아닌 '피자'다. 한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고소한 향내가 번지는 그 맛. 피자 한 조각이 전해주는 행복감을 잘 알고 있기에, 손수 배달에 나서는 도미노피자 여의도점 김동우 점장의 손길에는 정성이 어려 있다.

나는야 행복을 배달하는 사람

은은하게 쏟아지는 봄 햇살에 은빛 커튼 월이 반짝인다. 수많은 사무용 건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여의도. 저 너머 윤중로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지만, 봄날의 낭만에 젖어 있기에 일터에서의 하루는 분주하기만 하다. 2005년에 입사해 올해로 도미노피자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동우 점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몸이 마음을 앞서 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인다.

"어떤 분들은 피자 배달이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업계에서 일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찾아 서비스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음식배달원의 서비스가 좋으면, 기업 이미지도 덩달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늘 최상의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다짐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배달을 나갔을 때에도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생각하며 움직인다. 그래서 도미노피자 홈페이지에는 여의도점을 칭찬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곤 한다. 다른 이들이 식사를 하며 쉬는 시간에 그는 바지런히 움직여야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격려가 쏟아질 때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보람이 가슴 속을 뿌듯하게 채운다.

"얼마 전에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분이 퇴사하면서 피자를 여러 판 주문하셨어요. 전해 드려야 할 분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배달을 해 드렸거든요. 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안전운행은
반드시 지켜야 할
업무수칙이란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 사랑으로 보내는 하루하루

이런 태도는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기준이 아니다. 김동우 점장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늘 대화하고 다독이기를 잊지 않는다. 음식배달원 특성상 아르바이트생이 많아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잦지만, 그때마다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으로 대하는 그의 따스한 품성 때문이 아닐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가 취업을 해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 엽서 가득 편지를 써서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건 '사람' 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배달 가는 친구들에게도 가장 먼저 안전을 강조해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되니까요."

사실 수시로 당부하고 또 당부해야 할 만큼, 음식배달원의 근무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주문을 받은 후, 고객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져서도 안 될뿐더러 배달하는 음식의 상태까지 최고조로 유지하면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달업무가 많은 외식업계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피자를 빨리 만드는 노하우를 익히는 쪽으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피자 만드는 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배달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피자 빨리 만드는 대회를 열고 있어요. 단순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량 토핑에 정량 소싱 그리고 정량 치즈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진짜 달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안전배달' 정신으로 세상을 더 밝게

점장으로서 여의도점의 운영 전반을 맡고 있지만, 정성 들여 만든 피자를 안전하게 전하는 것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더구나 그는 가족을 위해서도 '안전한 배달' 을 해야만 한다.

"입사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절대 긴장을 늦추진 않습니다. 일단 사거리나 교차로가 나오면 속도를 줄여 우선 멈추고 좌우를 확인합니다. 길이 좋지 않으면 무조건 서행을 하고요."

매일 아침 도미노피자 모든 지점마다 붙어 있는 '안전운행 선서' 와 함께 첫 배달을 시작하는 김동우 점장. 늘 되새기는 마음가짐 덕분에 그가 부임한 이래로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신입 스태프가 들어오면 하루 30분씩 닷새 동안 안전교육을 시켜요. 말로만 '안전하게 배달하라' 고 말하기보다 실제 사고사례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면 경각심이 높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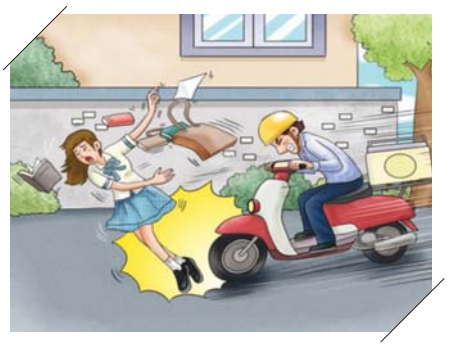
실제로 도미노피자에서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두 시간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점장들 역시 본사에서 따로 안전교육을 받고, 매주 화요일마다 각자가 맡고 있는 지점의 안전교육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간혹 어린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마음껏 탈 수 있다며 음식배달원에 지원하는데요. 안전운행은 반드시 지켜야 할 업무수칙이란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의도 한가운데에서 화사한 벚꽃처럼 피어오르는 김동우 점장의 '안전배달 정신' 이 전국 곳곳에서 일하는 음식배달원 모두의 가슴에 새겨지길 기대해본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사례

CASE 1 부딪침



CASE 2 부딪침

CASE 3 넘어짐

오토바이 배달원의 안전수칙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다.
- 슬리퍼를 착용하지 않는다.
- 운전 중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서행한다.
- 운전 중 통화하지 않는다.
- 교통규칙을 준수한다.

눈길, 빗길, 밤길 안전운전

- 다른 차로부터 물이 튀기면 순간 당황할 수 있으니 빗길의 상태를 살피고 서행한다.
- 커브길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속한다.
- 급제동 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다.
- 눈, 비가 올 땐 주변이 잘 보이지 않으니 주의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 미등을 켜고 야광조끼, 반사띠를 착용한다.
- 빙판, 빗길, 눈길에는 미끄러질 수 있으니 주의한다.

안전한 도로운전

- 교차로에선 일시 정지하여, 진입 차에 대비한다.
-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여 신호가 바뀔 것에 대비한다.
- 무리한 진로 변경 차에 주의한다.
- 급제동 시 넘어질 수 있으니 안전거리 확보한다.
- 밀려있는 차들 사이로 곡예운전 하지 말고 잠시 기다린다.
- 뒤차가 앞지르기할 땐 주의하여 운전한다.

안전한 주택가 운전(골목길 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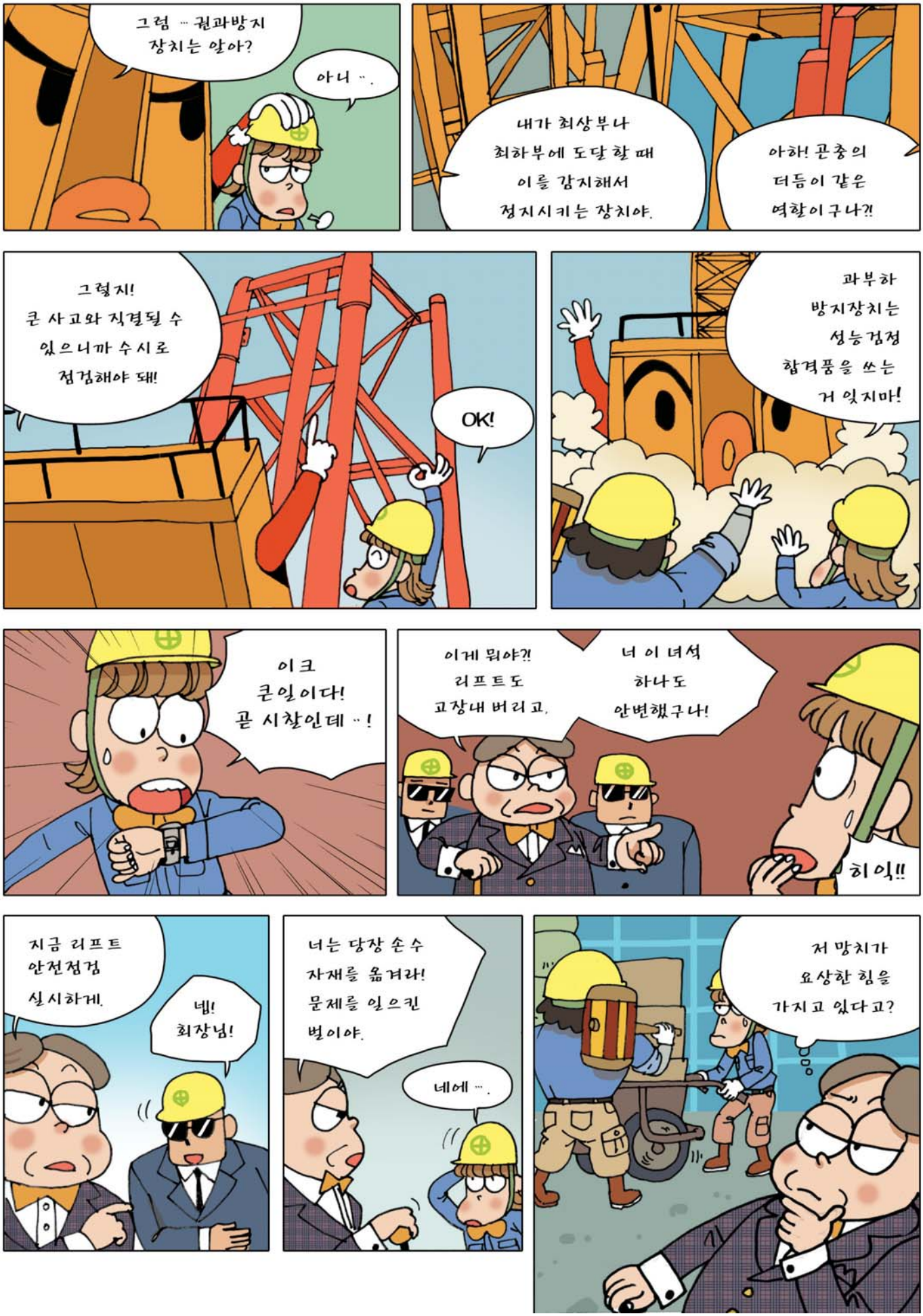
- 돌발 상황이 많으므로 감속운전 한다.
- 빙판길, 커브길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한 손 운전은 위험하니 양손으로 운전한다.
- 보행자에게 불안을 주지 않도록 항상 보행자를 보호한다.
- 놀이에 열중한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주의한다.
- 보행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다.

일러스트 김병철

건설용 리프트 작업안전


건설용리프트로 자재를 옮기는 작업이니까, 안전작업 하도록!
옛썰!!
영 ·· 차!
모든 일은 결과가 말해주지!
이제 그만 실어도 되겠는데?
무슨 소리야, 한 번에 많이 옮기야지!
들어 ·· 가라! 제발 ···!
그만해 ··· 문도 안 닫히겠어!
자 됐지? 출발~!
잠깐! 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이 안돼! 어?!
출입문 연동장치가 고장 났나? 이거 ··· 위험한데.
쾅!!
뭐 ·· 뭐지?!


응?!
아아아아!!!
비상정지버튼!!! 어디 있어!!!
기다려봐!
쾅
튀!!
이렇게 짐을 많이 실으면 어떻게!!
그리고, 비상시에는 이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어야지!
아~~~!!
생명과도 같은 버튼이니까 평소에 낙하방지장치랑 잘 점검해야 해!
낙하 방지장치?
전기적 이상이 생겨 운반구가 추락할 때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정지 시켜 주는 장치야.


그럼 … 권과방지 장치는 알아?
아니 … .
내가 최상부나 최하부에 도달할 때 이를 감지해서 정지시키는 장치야.
아하! 곤충의 더듬이 같은 역할이구나?!
그렇지! 큰 사고와 직결될 수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해야 돼!
OK!
과부하 방지장치는 성능검정 합격품을 쓰는 거 잊지마!
이크 큰일이다! 곧 시찰인데 … !
이게 뭐야?! 리프트도 고장내 버리고,
너 이 녀석 하나도 안변했구나!
히익!!
지금 리프트 안전점검 실시하게.
네! 회장님!
너는 당장 손수 자재를 옮겨라! 문제를 일으킨 벌이야.
네에 … .
저 망치가 요상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KOSHA

내 PC에 깔기만 하면 최신 안전보건미디어 정보가 한 눈에

안전보건미디어 위젯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최신 미디어 정보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PC에 배달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속보와 공지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서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바이오리듬 조회는 보너스~ 지금 바로 안전보건미디어 위젯을 설치하세요!

안전보건미디어 위젯은?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여 공단 홈페이지와 연동시키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악성코드처럼 컴퓨터의 성능이나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다음 사항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 ☞ 지역별 날씨 및 안전메시지 표출
- ☞ 업종별 · 주제별 · 매체별 최신 미디어와 베스트 미디어 알림
- ☞ 공단 공지사항 및 중대재해 속보 알림
- ☞ 바이오리듬 조회 기능

* 궁금하신 점은 공단 교육미디어실(032-5100-685)로 문의하세요

지금 바로 다운 받으세요!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제목에
'위젯' 이라고 치고 검색하세요!

Acting

실천 곱하기

42 화제의 명예감독관
46 생활안전 플러스
48 무재해 실천일지
52 건강 365
54 함께 배우는 스트레칭
56 중대재해사례 건설
58 중대재해사례 제조
60 중대재해사례 서비스

위험천만한 벨트식 안전대

건설현장에서 안전대는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대를 매지 않아 사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안전대를 매기만 하면 사망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나면 안전대를 맸더라도 절반은 사망한다. 허리를 지탱하지만, 질식사고나 척추골절을 불러올 수 있는 '벨트식' 안전대 때문이다. 최근 들어 벨트식 안전대 보급률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에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추락실험을 한 결과 그네식 안전대를 맨 원숭이는 30분 넘게 별다른 문제없이 버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죽지도 않았다. 반면 벨트식 안전대를 맨 원숭이는 추락 후 1분 30초 만에 질식사했다. 전문가들은 벨트식 안전대가 추락사고 방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천 곱하기 | 화제의 명예감독관

글 이환길 사진 안기성 | e-cube 스튜디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전을 생각합니다

박현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동국제강(주) 부산공장 압연 공정 현장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처럼 모습을 드러낸다. 한밤 담을 넘는 도적같이 몰래 다가오는 안전사고를 단숨에 때려잡으며 사랑하는 동료들의 안전을 지켜낸다. 동료를 사랑하는 만큼, 행복을 갈망하는 만큼 그가 전하는 안전은 더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더욱 무성히 가지를 펼치고 있다.

동국제강의 아침밥, 안전 의식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음악과 구령 소리에 맞춰 공장 마당 한쪽에서는 근로자들의 안전체조가 한창이다. 박현민 명예감독관의 지도 아래 머리, 어깨, 허리, 무릎, 발목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체조가 끝날 무렵 힘찬 함성과 구호가 이어지고 파트별 조회에 들어간다. 동그랗게 모여 오늘의 안전 의지를 표하고, 작업 사항을 전달받는다. 조회 후 다시 한 번 울리는 '파이팅~' 함성이 아침을 힘차게 두드린다. 동국제강 부산공장은 이처럼 아침마다 통합 안전 미팅을 통해 안전 의식을 몸과 머리 깊숙이 박아놓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현민 명예감독관이 있다.

체조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기 한 시간 전, 출근자가 없는 텅 빈 공장을 박현민 명예감독관 홀로 구석구석 누비고 있다. 압연 지원부서로서 Roll 공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민 명예감독관은 다른 근로자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현장 순찰을 한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을 마치고 나서야 그의 일과는 시작된다. 순찰 후에는 현장 감독관 미팅을 통해 오늘의 안전사항을 공유하고 일과를 논의한다.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지는 이제 막 3년이 넘었지만, 제강 공장에서 근무한 지는 30년이 되었습니다. 제강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압연 공정이 주를 이루는 만큼 모든 공간에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한 안전예방은 필수겠죠. 이에 확인과 점검은 끝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 소통하고 존중하고 생각하라

해가 뜨는 아침부터 이루어지는 안전 순찰은 해가 서산 넘어 사라질 때까지 이어지며 일과 내내 수없이 반복된다. 다양한 크기의 철강을 제작하는 만큼 하루에도 공정이 두세 번씩은 바뀌기 마련. 때문에 네다섯 번 아니 그 이상 꾸준히 체크를 해야만 한다.

물론 순찰은 혼자만의 몫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안전은 명예감독관 혼자 알고 노력해야 할 문제가 아니므로 두 달에 한 번씩은 각 공정의 감독관과 협력 업체 직원을 모두 순찰에 참여시킨다. 모든 현장을 함께 돌며 타 공정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는가 하면 어떤 위험요소가 있고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가를 정기적으로 주지시키는 것이다. 안전 관리가 우수한 공정 파트는 '명소'로 지정하고 유적지

나 문화재처럼 명소 기념비를 제작해 타 공정 파트의 귀감이 되도록 한다. 즉, 단순한 지적의 대상이 아닌 소통하는 안전, 그리고 존중받는 안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생각하는 안전을 덧붙인다. 그가 매번 근로자들에게 강조하는 동국제강의 안전 모토 '출입 전 1초 안전생각 지적확인' 은 안전사고 예방의 출발이다. 작업장 출입 전 상하좌우 지적확인을 통해 안전에 대한 생각을 습관화함으로써 개개인 심신에 안전 의식을 본능처럼 심어두고자 하는 것이다.

"명예감독관은 현장의 신호등과 같은 존재죠.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주는 신호등처럼 현장에서 안전에 대해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일입니다. 안전에 대한 소통이 잘 이루어질수록 현장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러한 소통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레 재해는 사라집니다."

안전 파트너 김석주 안전관리자가 그의 안전 열정에 한마디 거든다. "기본적으로 개선 의식이 뛰어난 분입니다. 게다가 정 많은 성격 덕에 근로자들의 고충을 진심으로 이해할 줄 아는 가슴도 지녔고요. 진심으로 동료를 사랑하니까 동료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의지 역시 강해지는 겁니다."

> "안전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 가족을 그리고 동료를
>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 안전은 나와 가정과 회사를
>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길이니,
> 우리 모두 안전 수칙을
> 반드시 지키고
> 작업 중 작은 방심조차
> 허용하지 않는
> 안전완벽주의자가 되길 바랍니다."

안전완벽주의로 일구는 행복의 길

동료 사랑에서 비롯된 박현민 명예감독관의 안전의지는 공장 구석구석에 그 증거를 남겨두었다. 압연 라인 전면에 임의적인 접근을 금지하는 안전 울타리를 설치했고, 세척기 호스 회전 릴을 제작해 근로자들의 작업 능률을 향상 시켰다. 가이드 이송 시 사용하는 후크걸이와 와이어 사이에 손가락이 끼일 것을 염려 후크걸이에 연결고리를 체결하여 손가락 협착 사고를 방지했다. 또, 착탈식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 소재장 입장 통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출입구, 승강사다리 등 출입관리가 필요한 지점마다 출입체인을 설치해 불필요한 출입으로 말미암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세심한 관찰을 통해 현재에도 다양한 개선 작업은 진행 중이고, 그 의지만큼 위험은 감소하고 있다. 개선 작업도 중요하지만, 고장 점검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며 고장 점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입을 연다.

think about SAFETY

"고장은 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주의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이죠. 그래서 고장 점검에 더욱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현장이 안전하게 개선되고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어 가는 모습 속에서 무한한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박현민 명예감독관. 그는 무재해 1,000일 달성을 꼭 이루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안전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그리고 동료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안전은 나와 가정과 회사를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길이니, 우리 모두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작업 중 작은 방심조차 허용하지 않는 안전완벽주의자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공정을 수시로 방문하며 관찰하고, 연구하는 박현민 명예감독관. 앞으로도 동국제강 부산공장의 안전은 그의 사랑과 열정을 듬뿍듬뿍 받으며 현장 곳곳에 뿌리를 내린 채 5월의 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날 것이다.

글 김종남 |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콘택트렌즈 관리 주의하세요~"

콘택트렌즈 100% 안전하게 사용하기

운동이나 여행할 때 콘택트렌즈는 안경보다 편리하고, 외모를 돋보이게 한다. 학생과 젊은 여성 등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과 관리 부주의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콘택트렌즈는 신체 가운데 예민한 조직의 하나인 눈의 각막에 직접 닿는 의료용구이므로 착용자가 올바르게 관리하고 주의 사항을 숙지한 뒤 사용해야 한다.

〈사례 1〉 박모(40대 남성) 씨는 일회용 렌즈를 3~4일 착용한 뒤 눈이 시리고 이물감 증상이 나타났다. 내원한 결과 각막염으로 판명돼 치료를 받았다.

〈사례 2〉 이모(20대 여성) 씨는 저녁에 소프트렌즈를 착용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오후에 렌즈를 뺀 뒤 눈을 뜨기가 어렵고 이물감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례 3〉 최모(20대 여성) 씨는 수영장에서 콘택트렌즈를 끼고 수영한 뒤 오른쪽 눈에 통증이 지속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콘택트렌즈 관련 위해 실태

콘택트렌즈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 사례는 2008년 175건, 2009년 143건, 2010년 163건으로 나타났다.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연령대는 20대가 56.1%(270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0대 19.5%(94명), 30대 14.3%(69명) 순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78.2%(376명)로 21.8%(105명)인 남자보다 훨씬 많았다.

2010년 접수된 163건의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요 부작용 증상은 통증 · 충혈이 57.1%(93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물감 30.7%(50건), 각막염 8.0%(13건), 결막염 1.2%(2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요인으로는 콘택트렌즈 착용 방법 및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한 주의 부족, 장시간 무리한 착용, 수면 중 착용, 렌즈 세척 소홀로 조사됐다. 위해 사례 유형은 렌즈를 착용 중 빼다가 깨짐(21건), 렌즈 착용 중 빠지지 않음(17건), 수면 중 착용(9건) 등으로 나타났다.

▣ 부작용 예방법 & 사용 시 주의 사항

콘택트렌즈는 반드시 안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 착용해야 한다. 착용 전에 안질환 유무 검사, 사후 관리와 사후 검사를 실행할 수 있는지, 눈물이 충분한지, 독성 성분의 화학약품이 있는 곳에서 일하지 않는지,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지 등 철저한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콘택트렌즈 착용 후에도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는 매일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주의 사항을 숙지해 위생적으로 착용하고, 눈이 아프거나 충혈이 되면 렌즈를 바로 빼고 안과 전문의와 상의한다. 렌즈를 다룰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 시 렌즈 표면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않는다. 세척액 · 보존액 · 생리식염수 등은 반드시 전문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수돗물이나 기타 사제 불량품 사용은 삼간다. 콘택트렌즈는 규정 시간 이상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로 · 수면 부족 · 장시간 독서로 눈이 피곤한 경우 잠시 착용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다가는 세균 ·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에 감염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 사용 시에는 콘택트렌즈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화장품은 렌즈 착용 후 사용한다. 손톱은 콘택트렌즈 착용 시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짧게 깎는다.

콘택트렌즈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

① 목욕이나 수영 시 렌즈를 껴도 괜찮을까?

목욕 시에는 물 온도가 높아 바이러스 감염 확률이 낮지만, 수영장에서는 물 온도가 체온보다 낮고, 안구가 물에 직접 닿는 접촉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확률이 높아 위험하다.

② 콘택트렌즈는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지 않은 상온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은 곰팡이를 번식시키는 최적의 장소이므로 피해야 한다.

③ 콘택트렌즈를 오래 착용하면 시력이 나빠질까?

렌즈 착용과 시력 저하는 전혀 상관없으나 잘못된 관리로 인해 각막에 상처가 나 눈이 혼탁해지거나 부작용이 생기면서 교정시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

④ 렌즈 하루 착용 적정 시간은 몇 시간일까?

눈이 건강한 사람은 하루 종일 껴도 무관하지만, 눈 건강을 위한 최대 권장 착용 시간은 6~8시간 정도이다.

⑤ 컬러 렌즈는 정말 눈에 좋지 않을까?

일반 렌즈와는 달리 색소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렌즈 표면이 거칠고 두꺼워 산소 투과율이 낮다, 각막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글 김현지 사진 안기성 | e-cube 스튜디오

두산건설(주)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건설현장

‘꾸준한 실천’ 모아 ‘무재해 현장’ 만든다

현장에는 저마다의 느낌이 있다. 두산건설(주)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건설현장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쾌적하다’ ‘화기애애하다’이다. 이곳의 작업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니 왜 이런 첫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무재해 현장,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점검은 매일매일, 개선은 그날그날

적은 양이라도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보다 학습의 능률과 이해력을 더 높일 수 있으며,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운동 역시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똑같은 일을 매일매일 실천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두산건설(주)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건설현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험요소를 찾아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 안전은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들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며 무재해현장을 만들고 있었다.

먼저 '9 Safety Patrol 5 Safety Meeting'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안전관리를 실천해 오고 있다. 매일 아침 9시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함께 현장을 돌며 작업 장애물과 시설물 배치실태 등을 확인하고 잠재위험요소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일과를 마무리할 때쯤인 오후 5시에 오전에 점검했던 부분과 작업 중간마다 불편했던 부분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개선 여부에 대해 회의를 한다. 그날에 있었던 불편사항은 바로 해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 지난 9월부터는 직원 1명이 1일 1건의 작업 중 발견한 위험요소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111 안전활동'을 시작했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합동안전점검을 통해 공구별 크로스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고는 날씨나 근로자의 기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때문에 이곳 현장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매일매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여 안전활동을 실천하고 있었다.

1 상처치료, 혈압측정 등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다.

2 출력확인을 위한 손혈관 인식 시스템

3 로프가 안전하다는 것을 월 · 화 · 수는 빨간색, 목 · 금 · 토는 파란색 끈을 사용해 나타내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은 현장의 안전

이처럼 안전활동은 각각의 점검을 통해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작업방법이나 안전규칙은 EHS(Enviorment, Health, Safety)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정별 모든 작업방법이 사진과 함께 설명돼 있다. 작업의 능률과 안전은 최대화하고, 사고는 최소한으로 줄일 방법도 함께 제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 주고 있다.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건설현장은 근로자들의 육체적인 안전뿐 아니라 쾌적하고 안락한 편의시설을 먼저 설치함으로써 정신적인 건강에도 신경 쓰고 있었다. 착공 초기부터 교육장, 침상, 샤워실, 인터넷 검색대,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할 수 있는 '안전문화센터' 를 함께 개설했다. 또,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간호사에게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실도 운영하고 있다.

도회우 현장소장은 "이곳 현장은 근로자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휴식도, 작업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이 곧 현장의 안전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특성상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근로자들 또한 바뀐다는 것을 고려해 안전교육과 안전활동을 꾸준히 개발해 현장의 안전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안전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건설현장은 일반적인 작업안전뿐만 아니라 감성안전까지 더해져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높여주고 있다.

매월 족구대회와 탁구대회 등을 마련해 유대관계를 형성함은 물론 또 아침마다 합소천(合笑泉) 안전조회(TBM)를 하고 있다. 이는 '함께 웃으면서 다 같이 즐겁게 일하자' 라는 의미로 TBM 시간에 옆의 동료와 함께 웃고 포옹하고, 그날의 안전과 파이팅을

다짐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두산건설 직원 한 명이 멘토가 되어 10~13명의 협력업체 근로자와 함께하는 멘토 · 멘티활동도 펼치고 있다. 근로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줌으로써 현장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심어주는 것이다.

"'티끌 모아 태산' 이라고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확한 역할분담,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의지와 염원이 하나씩 모여 저희는 KOSHA 18001, OHSAS 18001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한다는 인식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행동과 생각들이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이러한 배려와 근로자들의 노력 덕분일까. 지상 최대 59층, 약 207m 높이의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올해 무재해 3배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직 공정률은 14% 정도이지만,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해 마음만은 수치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사람과 시스템의 조화를 이룬 안전활동을 통해 착공 때까지 무재해 현장으로 지속하고 싶다는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건설현장. 이들의 밝은 웃음처럼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다 같이 즐겁게 일하며 무재해 현장, 행복한 일터로 만들어 가길 기대해 본다.

한눈에 살펴보는 무재해 비결

1. 기본에 충실한 작업 방법

회사 내에서 만들어 놓은 'EHS 가이드라인' 에 기초하여 모든 작업공종이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오가며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쪽 벽면에 사진과 함께 붙여 두었다.

2. 관리자들의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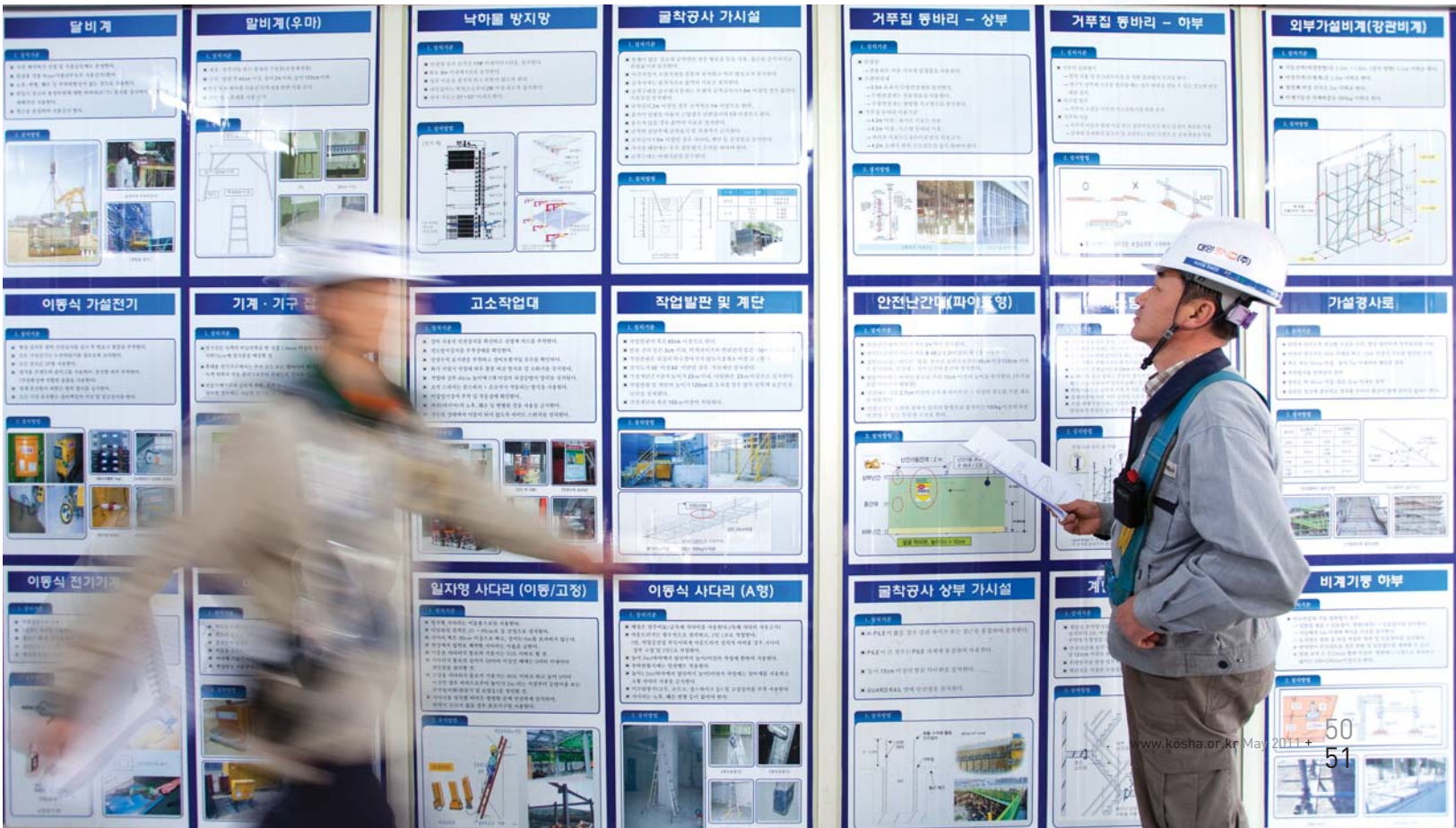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함께 매일 아침 현장을 방문해 안전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오후에 관련부분을 개선하여 다음 날 작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3. 깨끗한 작업환경

곳곳에 쓰레기통을 배치해 작업 후 남은 잔재나, 담배꽁초, 음료수 캔 등을 바로 버릴 수 있다. 근로자들이 이동할 때 발에 걸리는 부분이 없도록 했으며 깨끗한 작업현장을 자랑하고 있다.

4.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안전

안전문화센터, 족구대회, 탁구대회, 합소천(合笑泉) 안전조회, 멘토 · 멘티 활동 등 다양한 감성안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주고 있다.



정리 김현지

봄의 불청객 '황사' 주의보!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황사가 발생하지만, 올해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 물질과 중국의 대형 황사까지 겹치면서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다. 황사는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이 들어 있어 코나 입을 통해 호흡기로 들어가면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봄의 불청객인 황사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호흡기 질환

황사로 인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은 후두염이나 기관지염 등이다. 목이 칼칼하고 침을 삼킬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거나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 목구멍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실내습도를 조절하며 커피, 담배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아이들은 수시로 손을 입과 코로 가져가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게 해야 한다. 또한, 호흡기 질환을 막으려면 코로 호흡하는 것이 좋다. 입으로 숨 쉴 때보다 호흡기에 들어와 쌓이는 황사 90% 정도가 감소한다고 한다.

미세한 먼지는 일반 마스크로 잘 걸러지지 않으므로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인 황사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황사가 심할 때에는 외출을 삼가고 노약자나 어린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등은 특별히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

☞ 이것만은 기억하자!

하루에 약 1~1.5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면 호흡기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으며 장운동을 촉진해 유해물질 배출을 쉽게 할 수 있다. 특히 중금속 배출에 효과가 있는 모과차, 오미자차, 구기자차, 옥수수차 등 따뜻한 차를 평소에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눈 질환

황사로 인한 대표적인 안과적 질환들로는 결막염과 안구건조증 등이 있다. 눈이 가렵고 눈물이 많이 나며 빨갛게 충혈되는 증상과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도 느끼게 된다. 이때 눈을 비비면 끈끈한 분비물이 눈에서 나오고 증세가 심할 경우, 흰자위가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또한, 건조해진 실내공기와 겹치면서 안구건조증이나 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황사가 심할 때는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쓰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먼지 유입을 막는다. 등산과 같은 실외 운동은 피하고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평소보다 더 자주 실내 청소를 한다.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집 안팎으로 물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다.

☞ 이것만은 기억하자!

절대로 눈을 비벼서는 안 된다. 평상시 외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눈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결막염 초기 증세가 의심되면 깨끗한 찬물에 눈을 대고 깜빡거리거나 얼음찜질을 해주면 증세가 금방 안정될 수 있다.

피부 질환

중금속 산화물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피부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나 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가려움증, 따가움, 심하면 발진이나 발열, 부종 등 각종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화장품을 덧바르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 피부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와 수분 크림을 발라 황사가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피부가 가렵다고 긁거나 문지르면 안 된다. 외출 후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고 아침, 저녁으로 보습크림을 충분히 발라 지친 피부에 충분한 영양공급을 하도록 한다.

☞ 이것만은 기억하자!

거품타입의 세안제로 깨끗하게 세안을 하는 것이 좋다. 황사의 미세 먼지는 잘 씻겨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세안하는 것이 좋다. 피부가 민감해져 있는 봄철 황사에는 얼굴을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자극이 강한 클렌징이나 화장용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음식도 황사의 피해를 받는다

황사가 진행되면 야외에 노출돼 진열된 각종 식품, 밀봉이나 포장되지 않고 유통? 판매하는 과일 · 채소류 및 수산물 등의 오염 우려가 있다. 소비자는 포장제품의 포장상태를 재확인하고 식품은 깨끗하게 씻은 뒤 먹어야 한다.

☞ 황사 예방에 좋은 음식

섬유질이 많은 잡곡밥, 제철 과일, 채소를 자주 먹는다. 과일 중에는 딸기, 바나나, 오렌지 채소 중에는 두릅, 치커리 등에 산화스트레스를 막아주는 항산화 영양소와 엽산의 함량이 높다. 쇠고기, 콩, 굴, 해바라기씨, 계란, 우유 등도 황사 예방에 좋은 음식이다. 이 외에도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TIP

황사 철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 수칙

1. 일기예보를 좀 더 유심히 보며 황사에 대비한다.
2. 외출 시 마스크, 보호안경, 스카프, 모자 등을 챙기면 도움이 된다.
3. 렌즈 착용보다는 안경을 쓰는 것이 좋다.
4.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세안과 양치질까지 한다. 실제로 손만 잘 닦으면 황사로 인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5. 날씨가 따뜻하다고 반팔 옷을 입기보다는 얇은 긴팔옷을 입어 피부를 보호해준다.
6.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샤워를 해 바깥 활동 중 묻은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좋다.
7. 물을 자주 마시고 과일과 채소 등을 많이 먹는다.

글 박경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부 제조업팀 일러스트 서정국

어깨를 뻗고 몸통을 비트는 도장 작업 근로자를 위한 스트레칭

Stretching

어린 시절 누구나 머리 위로 손을 들고 벌을 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짧은 시간은 버틸만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는 굽어지고 팔은 빠질 듯이 아파져 오기 시작한다. 팔을 어깨 위로 올리고 장시간 있게 되면 어깨와 목에 많은 부담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자세에서 허리를 비틀어 작업해야 한다면 어떨까? 당연히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점점 더 괴로울 수밖에 없다. 또, 작업이 반복될수록 우리 몸의 회복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준다면 몸의 회복을 도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몸은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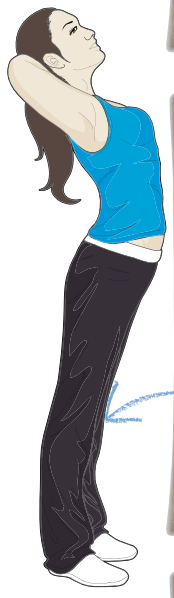
잠깐의 스트레칭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자.

1 전신 스트레칭

①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②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위에서 쭉 펴준다.
③ 끌어 올린 상태에서 10~30초간 자세를 유지한 후 긴장을 풀어 준다.
④ 반복 실시한다.

2 어깨 스트레칭

①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② 양손으로 깍지를 끼고, 머리 뒤를 받치고 선다.
③ 2번의 자세를 유지하고 천천히 고개를 뒤로 넘겨준다.
④ 자세가 고정되면 10~30초간 유지한 후 쉬었다가 반복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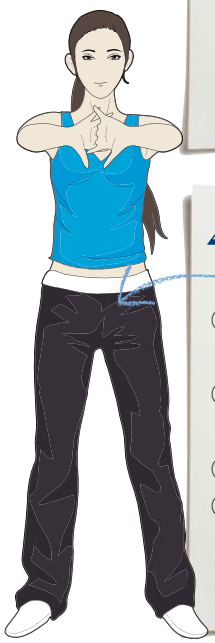


3 허리 스트레칭

① 두 다리를 모으고 선다.
② 몸을 천천히 굽혀서 발목을 잡고 자세를 유지한다.
③ 자세가 고정되면 10초에서 30초간 유지한 후 쉬었다가 반복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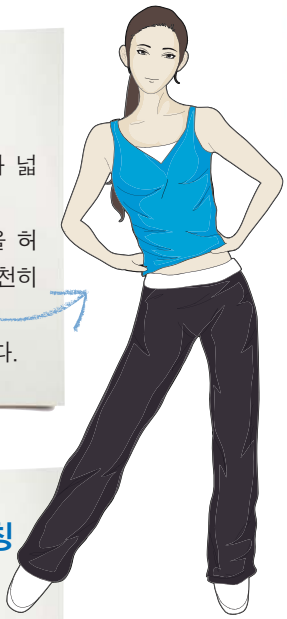
4 허리 스트레칭

①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②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 낀 후 쫙 펴준다.
③ 천천히 몸을 비틀어 준다.
④ 자세가 고정되면 10~30초간 유지한 후 쉬었다가 반대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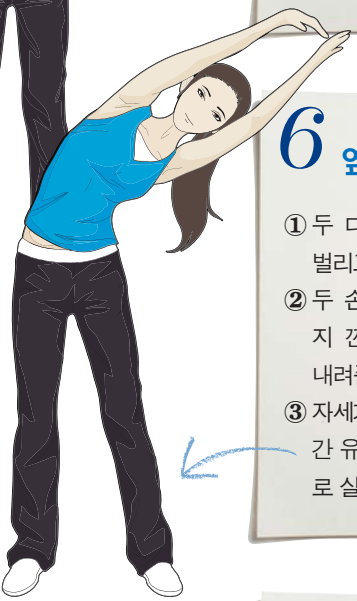
5 허리 돌리기

① 두 다리를 어깨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선다.
② 정면을 바라보고, 양손을 허리에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허리를 돌려준다.
③ 반대쪽도 천천히 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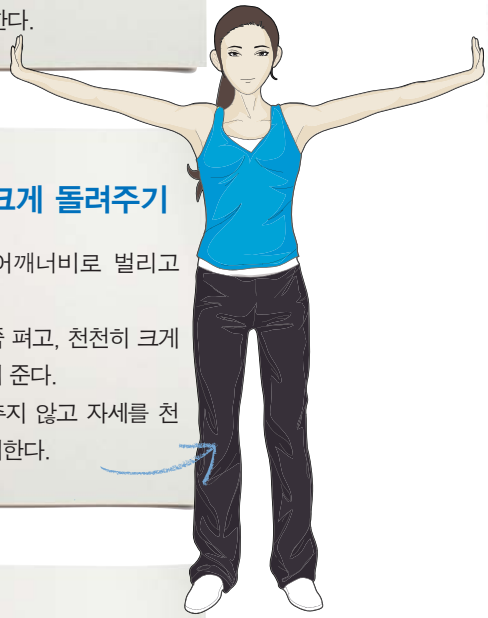
6 옆구리 스트레칭

①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② 두 손을 머리 위에서 깍지 낀 후에 천천히 옆으로 내려준다.
③ 자세가 고정되면 10~30초간 유지한 후 쉬었다가 반대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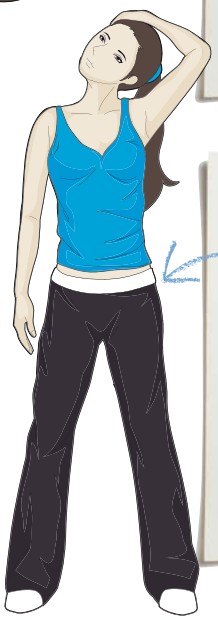
7 팔 크게 돌려주기

①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② 양팔을 쭉 펴고, 천천히 크게 원을 그려 준다.
③ 숨을 멈추지 않고 자세를 천천히 실시한다.



8 목 스트레칭

①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다.
② 한쪽 손을 머리에 올리고 천천히 당겨준다.
③ 자세가 고정되면 10~30초간 유지한 후 쉬었다가 반대로 실시한다.



조사원 허명수 | 경인북부지도원 건설업팀 정리 유성원 일러스트 오성교

잘못된 장비 사용으로 사라진 목숨

백호우에서 떨어진 엄지말뚝에 깔려 사망

백호우 등 차량계건설기계를 주용도 외에 다른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모든 장비는 그 쓰임새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는 이번 사례처럼 중대재해로 이어지게 된다.

백호우로 옮기던 엄지말뚝이 떨어지며 사망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인 김씨와 동료들은 흙막이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엄지말뚝(H-Beam)을 뽑아 인근 임시야적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맡았다.

"이동식크레인이 너무 안 오는데 그냥 백호우로 마무리합시다."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백호우는 다른 용도로 써야 하는데."

"괜찮아요. 저기 소장님 계시네. 소장님~ 이동식크레인이 안 오는데 여기 백호우로 최종 마무리해도 되죠?"

"어? 아직도 안 왔어? 그래 시간 없으니까 그냥 진행해."

이들은 장비 도착이 지연되자 백호우를 이용해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엄지말뚝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를 백호우 버켓 후면에 있는 후크에 체결 후 이동 신호를 하였다. 백호우 기사가 엄지말뚝을 지면에서 약 1m 정도 상승시키는 순간 균형이 맞지 않아 심하게 흔들렸다.

"안 되겠어. 일단 내려놔요."

김씨는 엄지말뚝의 오른쪽 부분을 잡으면서 지면으로 내려놓으라고 신호했다. 하지만 그 순간 와이어로프가 후크에서 이탈되며 엄지말뚝이 김씨를 덮쳤다. 사고 직후 동료들이 김씨를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응급치료 중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사고현장 전경

사고 당시 백호우 버켓 상태

버켓 후크 모습

백호우를 다른 용도로 사용

사고 당일 백호우의 작업내용은 흙막이구간의 되메우기와 엄지말뚝을 쉽게 뽑기 위한 지원이었다. 하지만 이동식크레인의 도착이 지연되자 백호우를 사용해 엄지말뚝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엄지말뚝처럼 길이가 긴 자재의 경우 줄걸이 상태가 균형을 이뤄야 하나, 사고 당시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태의 2줄 걸이 와이어로프를 백호우 버켓 후면의 후크에 체결하는 등 작업방법이 부적절했다. 특히 후크에는 해지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와이어로프(wire rope) : 여러 가닥의 강선(鋼線)을 꼬아서 하나의 꼬임(strand)을 만들고 다시 6개 정도의 꼬임(다발)을 기름을 매긴 삼(痲)로프를 심으로 하여 꼬아서 만든 것. 로프의 꼬는 방법에는 오른쪽꼬임(S꼬임)과 왼쪽꼬임(Z꼬임)이 있고 가닥의 꼬임방향과 로프의 꼬임 방향에 따라 보통꼬임과 랭(langs)꼬임으로 나누어진다.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백호우 등 차량계건설기계는 주용도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엄지말뚝 등의 중량물을 인양하거나 운반할 때에는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차량계건설기계의 주용도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 부득이 백호우를 사용할 경우에는 2줄 걸이에 의해 균형을 확보해야 하고, 해지장치가 부착된 후크에 체결해야 한다.

조사원 홍광수, 김상중 | 전북지도원 제조업팀 정리 유성원 일러스트 오성교

불안전한 작업에 균형 잃은 안전

천장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던 항온장치가 뒤집히며 사망

천장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한 줄걸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지 않아 뒤집힐 위험이 있는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는 등 중량물의 제작특성에 적합한 운반설비 또는 운반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균형 잃은 항온장치에 깔려 사망

"이봐 이씨, 여기 좀 도와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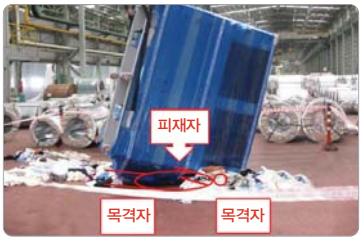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난 3월 군산시 소재 칼라강판 출하장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이씨는 정비팀에서 작업지원요청을 해와 항온장치 운반작업을 시작했다. 이씨는 항온장치를 슬링벨트에 매달고 천장크레인(15톤) 후크에 연결된 보조달기기구에 슬링벨트 링을 걸었다. 이후 천장크레인 리모컨 스위치를 조작해 항온장치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항온장치를 작업장 바닥으로부터 약 1m 정도 들어 올린 후 50cm 정도 더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항온장치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기울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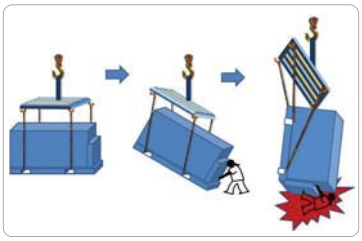
"이런, 무게 중심이 안 맞나? 내가 좀 받쳐줘야겠네."

이씨가 항온장치 밑으로 다가가 팔과 몸으로 항온장치를 받쳐주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항온장치가 급격히 기울어지며 이씨를 덮쳤다. 이씨는 항온장치 무게에 눌려 넘어지며 작업장 바닥과 항온장치 사이에 머리가 끼이고 말았다. 병원으로 급하게 후송했으나 응급처치 중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재해발생현장



재해발생 당시 동료작업자 위치


재해발생 당시 상황

줄걸이 방법과 운반설비 적절하지 않아

이씨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슬링벨트에 매달아도 균형을 유지할 것을 판단했지만, 항온장치 내부의 오른쪽에 무게가 더 나가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씨는 1.2톤의 항온장치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해 기울어진 부분을 받쳐주려다가 급격히 기울어진 항온장치에 깔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었음에도 작업계획서나 작업지휘자 모두 부재해 작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항온장치의 규격(폭×길이×높이: 0.8m×2.2m×1.9m)이나 중량, 제작사양을 고려할 때 운반방법은 지게차를 이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들은 보조달기구를 활용해 슬링벨트를 하부에 걸어 운반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 이처럼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지 않아 전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는 등 중량물의 제작특성에 적합한 운반설비나 운반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슬링벨트(sling belt) : 슬링벨트는 항만 운송업에서 고리걸이 용구를 총칭하는 말이며 로프 슬링(rope sling), 드럼 슬링(drum sling), 네트 슬링(net sling), 훅부착 슬링, 팔레트 슬링(pallet sling) 등이 있으며 화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슬링을 선택해 줄걸이 작업을 하여야 한다.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량물의 상부 4곳에 리프팅 러그를 설치하여 안전한 줄걸이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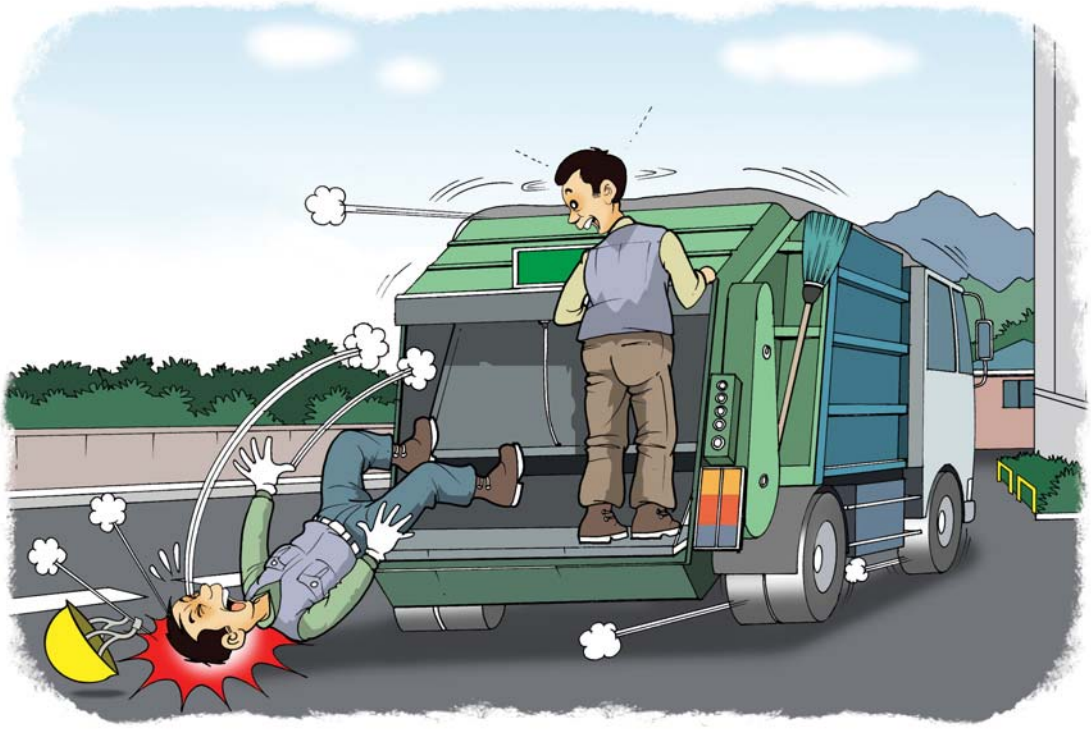
중량물 운반작업 시 위험요인을 분석해 전복에 의한 재해위험이 있는 경우 중량물의 상부 4곳에 리프팅 러그를 설치해 러그에 슬링벨트를 체결하는 등의 안전한 줄걸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해야 한다.

조사원 장용훈, 박희도 | 대구지역본부 서비스안전팀 정리 유성원 일러스트 오성교

'빨리빨리' 가 부른 참사

청소차량 투입구 작업대에서 추락해 사망

청소차량에 탑승할 때에는 승차석 이외의 다른 곳에는 절대 탑승해서는 안 된다.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 이 같은 기본사항을 무시하면 이번 사례처럼 중대재해로 이어지게 된다. 해당 작업의 기본 안전수칙을 항상 준수하는 것이 소중한 목숨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차량 뒤쪽 작업대에 탑승해 이동 중 추락

"형님, 여기 작업대에 올라가서 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죠."

"그래. 그러지 뭐."

지난 3월 대구시 소재 구청 소속 미화원인 황씨를 비롯한 3명은 야간에 청소차량을 이용해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방법은 황씨와 동료작업자 한 명이 청소차량을 뒤따라가며 길가에 수집된 생활쓰레기를 청소차에 올린 다음

적재함 회전판을 작동시켜 압착한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작업시작 장소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한 황씨 등은 다음 장소로 빨리 이동하기 위해 청소차량의 뒤쪽 투입구 작업대(설치높이 약 90cm)에 탑승했다.

"장갑이 미끄럽네. 어, 어어."

새벽 2시경 청소차량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며 전진하던 중 황씨가 작업대에서 추락했다. 머리에 피를 흘리고 도로바닥에 쓰러진 황씨를 동료작업자들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하고 말았다.

재해발생 장소

수집차량 후미 탑승 재연

수집차량 투입구 작업대

추락위험 있는 투입구 작업대에 탑승

사고 당시 황씨는 안전모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으며(턱끈 미착용), 작업 중 이물질이 코팅 장갑 표면에 묻어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였다. 또한, 투입구 작업대 역시 이물질로 인해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황씨가 탑승한 청소차량 뒤쪽 투입구 작업대는 작업자 탑승용이 아닌 작업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탑승 시 추락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작업을 빨리하기 위해 작업대에 탑승해 이동했고, 청소차량이 우회전하며 순간적으로 원심력이 발생해 황씨가 몸의 균형을 잃고 도로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고 만 것이다.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대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쓰레기 수집 작업 중 근로자가 전용발판이 아닌 차량운행에 따른 추락의 위험이 있는 투입구 작업대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근거리는 도보로 이동하고 원거리 이동 시에는 안전한 운전실 내부 승차석에 탑승하도록 작업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KOSHA

“요통, 근골격계질환 이렇게 예방하세요”

‘생활 속 요통 예방 5대 수칙’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 10대 수칙’ 제공

일상생활이나 일터에서 발생하기 쉬운 요통과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제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허리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 요통 예방 5대 수칙’

① 물건을 들 때는 물건을 몸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허리를 펴고 들것
② 무거운 물건은 가볍게 나눠서 들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들것
③ 의자에 앉을 때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르게 앉을 것
④ 오랜 시간 한 가지 자세만 유지하지 말고 자주 자세를 바꿀 것
⑤ 스트레칭과 허리근력 강화 운동을 생활화 할 것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허리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 10대 수칙’

① 물건을 들거나 내릴 때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기
② 어깨 위 높이에는 되도록 물건을 두지 않기
③ 물건 운반 시 이동대차 사용하기
④ 자주 사용하는 부품이나 공구는 몸 가까이에 두기
⑤ 작업높이는 팔꿈치 높이로 하기
⑥ 수공구는 가볍고 다루기 쉬운 것으로 선택하기
⑦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입좌식 의자나 발 받침대 사용하기
⑧ 작업장 정리정돈을 잘하고 바닥은 평평하게 하기
⑨ 스트레칭을 생활하기
⑩ 정기적인 충분한 휴식시간 갖기

문의: 공단 직업건강실 032-5100-719

* 공단은 이번에 개발된 예방수칙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자료실’에 등록하여 일반인과 사업장 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지역본부 등에 포스터를 배포하여 관련 산업현장에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Feeling

느낌 나누기

Theme Story – 어린이안전

64 Theme Keyword
66 Theme Interview
68 Theme Touch
70 Theme Plus
72 특별기고
74 안전보건 Focus
76 지구촌 안전보건
78 KOSHA NEWS
80 안전인증현황
82 KOSHA Info & 독자퀴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호흡법

· 화 다스리는 호흡법

화가 났을 때 머리끝까지 뻗은 기를 끌어내리는 호흡법으로 몸속의 나쁜 에너지를 배출시켜 준다.

① 숨을 깊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크게 기지개를 켜듯 몸을 뒤로 젖히고 목을 돌려 상반신과 등의 결림을 풀어준다.

②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양손을 머리에 대고 가슴을 편 다음 숨을 들이시면서 배를 넣는 기분으로 웅크렸다가 숨을 내쉬면서 바로 선다.

· 스마일 호흡법

의식적으로 웃는 호흡법으로 5세트씩 10회 정도 실시하면 답답한 가슴이 확 뚫리는 느낌이 든다.

① 등을 펴고 의자에 앉은 다음 왼손은 명치에 오른손은 아랫배에 대고 숨을 들이마신다.

② 상반신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아~'하고 소리를 내어 명치가 들어가도록 숨을 최대한 내쉰다. 그 다음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반신을 천천히 일으킨다.

글 김현지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 안전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나 나들이 준비에 정신없다. 최신 유행하는 장난감이나 평소 갖고 싶어 하던 물건으로 아이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일이다. 이번 어린이날에는 우리 아이에게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아마 그 어떤 선물보다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Theme Story

安全 안전

"으아앙~"

"엄마가 혼자 함부로 뛰어다니지 말랬지? 거봐, 엄마 말 안 들으니깐 이렇게 넘어지잖아."

지난 주말 백화점에 들어서는데 한 아주머니가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를 나무라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어깨와 코를 훌쩍이며 계속 울어댔다. 아마 아이가 뛰다가 넘어져 다친 모양이다. 잠시 후에 뒤돌아보니 엄마는 아이의 무릎을 호호~ 불어주며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줬다. 아이도 놀란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는지 엄마 품에 안겼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부모와 아이 모두 놀랐을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 놀이공원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아이들이 놀다 보면 넘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씩씩하고 활동적인 모습도 좋지만, 어린이는 위기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 큰 사고를 겪게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특히 5월에는 다른 달에 비해 교통, 화재, 신변, 가정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야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아이도 어른도 기분이 들떠 미처 안전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즐거워야 할 시간에 순간의 부주의로 가족 모두에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을 수 있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라고 표현하곤 한다.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자녀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면 어릴 때부터 '안전' 을 습관화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 어떤 선물보다 평생 간직할 수 있는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다.

글 김현지 사진 안기성 | e-cube 스튜디오

Theme Story

安全 안전

"어린이 안전은 우리나라의 미래"

안전실천시민연합회 어머니안전지도자회 윤영미 어린이 안전교육 지도자

완연한 봄기운에 만개한 봄꽃이 아무리 예쁘다 한들, 어린이들의 웃음꽃에 비교할 순 없었다. 한 손을 번쩍 들고,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를 연습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윤영미 어린이 안전교육 지도자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흐른다.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주고 싶다는 그녀의 어린이 안전교육현장 속으로 따라가 보았다.

어린이 학습능력에 맞춘 안전교육

"어? 신호등이다!"

"그래요. 여러분 유치원 밖에서 이렇게 생긴 신호등 본 적 있죠? 오늘은 선생님이랑 여기 보이는 신호등 앞에서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연습을 할 거에요."

이곳은 영등포구 문래동 한별어린이집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현장. 일반 도로에 있어야 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유치원 안 바로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먼저 윤영미 어린이 안전교육 지도자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시작했다. 그녀가 직접 시범을 보일 때는 동작은 크게, 표정은 다양하게 지어 어린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중요한 부분은 짧은 단어로 요약해 어린이들과 합창해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도록 했고, 어린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교육은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했다. 이는 유치원생 어린이 정보습득 능력에 맞춰 안전실천시민연합회(이하 안실련) 어머니안전지도자회에서 준비한 수업 방식이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재미있는 방식을 통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윤영미 지도자가 소속돼 있는 안실련 어머니안전지도자들은 거의 매일 유치원이나 학교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 교통안전을 비롯하여 최근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는 성폭력 · 유괴, 화재, 놀이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의 방향 잡이 되기를

윤영미 지도자는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꾸준히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정확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린이는 부모가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하는 습관이 있으므로,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신호등이 파란색 불일 때 건너라"는 것이 아니라, "초록색 불로 바뀌면 우선 멈추고, 주위를 살피고,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자동차 멈춤을 확인한 뒤 천천히 걷는다"라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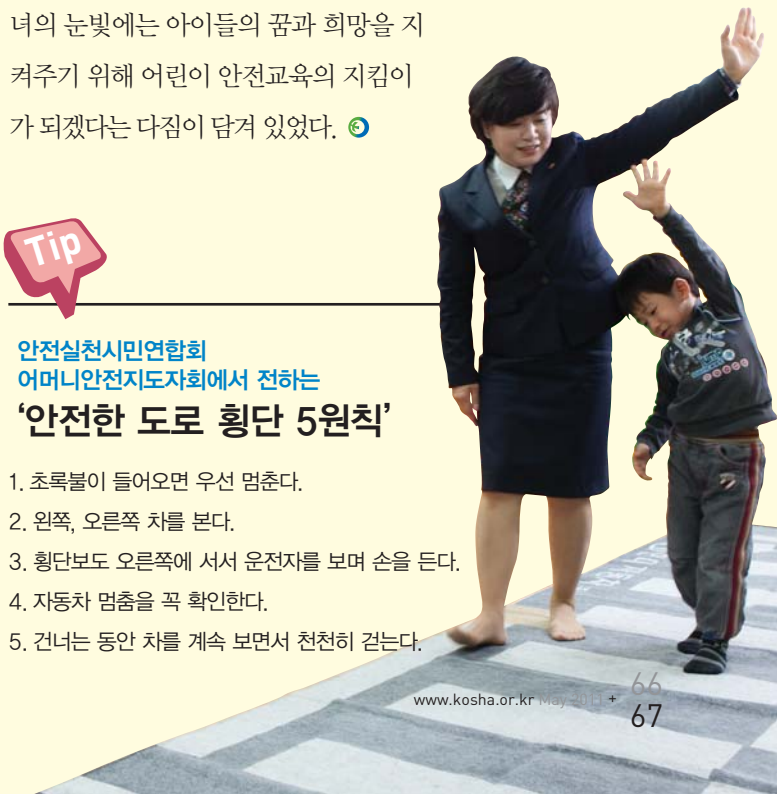
때문에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 당사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부모나 학교의 교사들 역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다. 윤영미 지도자 역시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입니다. 보호자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면 아이들의 안전의식도 자연스레 높아지게 되어 있죠. 이러한 습관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대한민국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어린이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른들의 과제입니다."

현재 윤영미 지도자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의 안실련 어머니안전지도자들은 오늘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안전교육,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조심조심 코리아' 어린이 교육용 책자 등을 활용해 어린이가 안전을 쉽고, 관심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의 꿈은 우리나라의 희망이자 재산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저희는 어린이가 안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방향 잡이가 되어주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윤영미 지도자. 그녀의 눈빛에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 어린이 안전교육의 지킴이가 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Tip

안전실천시민연합회
어머니안전지도자회에서 전하는

'안전한 도로 횡단 5원칙'

1. 초록불이 들어오면 우선 멈춘다.
2. 왼쪽, 오른쪽 차를 본다.
3. 횡단보도 오른쪽에 서서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든다.
4. 자동차 멈춤을 꼭 확인한다.
5. 건너는 동안 차를 계속 보면서 천천히 걷는다.

정리 김현지

내 아이의 안전 이것만은 알아두자!

Theme Story

安全 안전

– 유형별 어린이 안전사고

요즘 뉴스나 신문에 어린이 안전사고 소식이 자주 들린다. 어린이는 아직 정확한 판단과 행동을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 · 외부적인 상황이 많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요인으로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 예방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유형별로 살펴보자.

어린이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사고〉

지난 2009년 한국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11,427건 중 63.3%(7,229건)가 일반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은 부모의 관리와 통제 하에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으나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부모의 인지도가 낮아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걸음마를 시작해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만 1~3세는 탁자, 침대, 소파, 의자 등과 같은 편의시설용 가구에 부딪히거나 넘어짐,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다. 반면 만 7~14세는 활동성이 커지다 보니 현관문에 끼이거나 베임, 찔림, 화상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가정 내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하자

가정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안전수칙을 알아두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자, 침대 등 어린이가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가구들은 창문 가까이 두지 않고 날카로운 물건들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가구의 모서리에는 안전 보호대를 부착해 부딪쳤을 때 부상을 예방하고, 어린이 혼자서 욕조 목욕을 하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의 돌출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보행중의 사고와 승차중의 사고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중 사고가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의 돌출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초록 신호등만 보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건너기, 무단횡단 하기,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기, 주정차 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기 등이 있다. 이외에도 운전자들의 불법 주차, 무질서한 운전 등과 같은 부주의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이렇게 예방하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먼저 보도경계석에 서서 차가 오는지 주변을 살피고 운전자와 눈을 맞추며 걷는다. 눈 · 비가 내리거나 저녁 늦은 시간에는 어른과 동행하고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자동차 탑승 시,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앉으며 어린이용 안전시트를 이용해 충돌 시에 튕겨져나가는 것을 예방한다.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하는 어린이의 경우 버스를 타고 내릴 때 폭이 넓은 긴 치마, 끈이 있는 신발 등은 계단에서 밟히거나 문에 끼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아차' 사고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학교사고〉

학교 내에서는 체육시간, 청소시간, 실험 실습, 휴식시간 등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책상과 의자에 부딪히기도 하고 계단에서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공놀이나 장난을 치다가 어린이들이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잦은 편이지만 교사가 한 번에 많은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역시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교사가 학생들의 관리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 내 어린이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하자

계단에서는 절대 장난을 치지 않으며 두세 개의 계단을 한꺼번에 오르거나 뛰어 내려오지 않는다. 학용품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던지지 말고, 화장실에서는 물기로 인한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한다. 교사는 교과 관련 시간에 맞는 안전 수칙을 미리 교육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행동을 수시로 점검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보호자가 없을 때 자주 일어나는

〈놀이사고〉

어린이들이 쉽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계절별 놀이(수영, 눈썰매, 스케이트 등), 놀이터 등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놀이터는 어른의 보호 없이 어린이들만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큰 편이다. 그네나 미끄럼틀에서 떨어지거나 시설물에 머리를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다. 또는 안전보호 장비 없이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타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남자 어린이 중에는 비비탄 총이나 부메랑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이 신체 일부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례도 많다.

어린이 놀이사고 이렇게 예방하자

놀이터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실한 놀이기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는 안전수칙을 잘 지켜 놀이기구를 이용해야 한다. 날카롭거나 뾰족한 부분이 있는 장난감은 피하며 만약 가지고 놀 때에는 보호자가 지켜보는 것이 좋다. 또한, 적절한 안전보호 장비를 몸에 맞게 착용하고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며 주차장, 도로 쪽으로 가지 않도록 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교육한다.

Tip

● 떡이나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렸을 때 응급처치방법

어린 영아와 성인의 기도 구조는 다르므로 기도가 막혔을 경우, 각각 다른 응급처치방법이 적용된다. 0~1세의 영아는 구조자가 한 손으로 영아의 턱과 가슴을 받친 자세에서 영아의 어깨뼈 사이를 5회 정도 두드려 준다. 1세 이상 소아의 경우, 구조자는 뒤쪽에 서서 주먹을 쥔 채 엄지손가락을 환자의 배 중앙에 놓는다. 다른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환자의 배를 등 쪽으로 강하게 밀쳐 올린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이물질이 배출됐는지 확인한다.

정리 김현지

어려서 배운 안전교육 여든까지 간다

–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관

어린이 안전교육이야말로 '백문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다. 집중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겐 이론적인 학습보다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이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안전습관을 높여줄 수 있다.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체험을 통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곳을 살펴보았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과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천하는 곳이다. 조기안전교육의 중요성과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생활이 습관화되도록 일깨워 주고 있다.

이곳에서 위탁 · 운영하는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는 교통안전반, 가정안전반, 어린이소방서, 대처능력반 등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을 하고 있다. 이곳을 방문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유치원이나 학교 등으로 직접 방문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버스, 어린이 자전거운전 인증시험, 안전 선생님과 함께하는 안전교육 등의 다양한 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문의 02-400-9248

홈페이지 www.childsafe.or.kr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은 화재, 지진, 풍수해 등 각종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아이들은 물론 일반시민도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재난 체험관이다. 가상재난 체험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며,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진 체험장, 풍수해 체험장, 연기피난 체험장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실질적인 안전체험교육이 가능하다.

체험관에서는 실내 지진과 실외 지진 상황을 겪어보고 무너지는 건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과 필수적인 대처법을 익힐 수 있다. 소화기와 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 및 응급처치법 등의 체험도 해볼 수 있다.

문의 02-2049-4000, 02-2027-4100

홈페이지 http://safe119.seoul.go.kr/

키즈오토파크

키즈오토파크는 어린이 스스로 직접 보고, 만지고, 작동해 보는 경험을 통해 교통안전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꾸며져 있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이다. 보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3D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골목길에서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는 보행체험교육, 어린이 신체에 맞는 체험차(전기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운전자와 자동차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주행체험교육, 안전띠 교육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문의 02-455-7119, 7219 홈페이지 www.kidsautopark.org

한국 119소년단

한국 119소년단은 학교나 가정 등 생활 주변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배우고 익혀 미래의 안전선도 요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유치부, 초등부, 중 · 고등부, 대학부로 구성돼 있으며 안전활동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안전의 생생한 지식과 정보를 익힐 수 있다.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 캠페인 등과 같은 모든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은 연령대별 능력에 따라 어린이의 잠재적인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이런 체험교육을 통해 119소년단들은 안전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문의 02-2100-5358 홈페이지 www.young119.or.kr

어린이안전지하철체험

인천지하철공사 남부관리사업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어린이지하철안전체험 행사를 하고 있다. 생활의 주요 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의 각종 수칙과 공공예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이다.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물소화기 사용체험, 승강장에서의 주의사항과 승 · 하자 요령, 안전선 교육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문의 032-451-3626 홈페이지 www.incheonmetro.co.kr

TIP

가족 나들이와 어린이 안전체험을 동시에

〈2011 Seoul 어린이 모터쇼〉

온 가족 모두가 함께 체험하고 어린이들이 자동차 원리에 대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Seoul 어린이 모터쇼'가 8월 22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 특별체험관에서 열린다. 참가 어린이들은 현장에서 레이싱 카트, 수상 자동차 등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볼 수 있다. 횡단보도 건너기, 자동차 신호등 보는 법, 안전벨트 착용 후 급제동 체험 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며 교통안전교육을 모두 수료한 어린이에게는 어린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문의 1588-7859

뮤지컬 〈우당탕탕 아이쿠〉

'우당탕탕 아이쿠'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 납치, 유괴, 실종사건의 위험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뮤지컬이다. 안전 교육 중 유괴예방방법에 초점을 맞춰 우리 어린이들에게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외계에서 온 아이쿠 왕자와 로봇 비비가 지구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배우고 생활화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어린이들은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영등포구 CGV 아트홀에서 5월 22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2-518-0575

글 김용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도원 제조임업팀장

숲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나 울창한 숲을 볼 수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하늘이 준 선물이자 우리 모두가 오랜 기간 노력해 얻은 결과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임업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곁에 항상 아름다운 숲과 그 숲을 지키는 건강하고 행복한 근로자가 있기를 희망한다.

임업재해율, 전체 산업재해율의 4배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인 산림국가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무려 82%나 되며,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산림도(山林道)' 이다. 산림이 얼마나 울창한지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수준은 전국 평균의 124%를 나타내고 있어 다른 광역시 · 도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에는 숲을 가꾸는 임업사업장수가 2010년 기준 전국의 24.2%인 1,821개소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16,036명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3년(2008~2010년)간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만 숲을 가꾸다 1,48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6명은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2010년 전국 임업 재해율은 2.8%로 전체 산업재해율(0.69%)의 4배가 넘는다. 전국에서 6,926명이 재해를 입었고 74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제적 손실액으로 환산하면 1조 2,249억 원이나 된다. 우리공단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조사를 하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작년 9월 평창군 산림현장에서 43세의 근로자가 나무 위에 겹쳐진 다른 벌목나무 일부를 베다가 미끄러진 나무에 가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재해자는 몇 년 전에 부인과 이혼을 했으며, 가족으로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

었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사고로 졸지에 고아가 된 것이다. 지난해 말에는 정선군에서 세 자녀를 둔 49세의 근로자가 다른 사람이 베어 넘기던 소나무에 맞아 사망했다. 이 재해자의 첫째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 둘째, 셋째는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한다. 한순간에 가장인 남편과 아이들의 아버지를 잃은 것이다. 이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부인과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다.

임업재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벌목작업 중 벌도목에 의한 충돌, 산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기계톱에 의한 절단, 낙하 등의 재해가 전체 재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말벌, 독사, 독충, 일사병, 쯔쯔가무시병 등에 의한 재해를 당하기 쉽다. 이와 같은 재해는 산이라는 작업환경의 특수성과 나무를 다루는 높은 작업강도,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재 등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다.

아름다운 숲과 행복한 근로자

2011년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산림의 해'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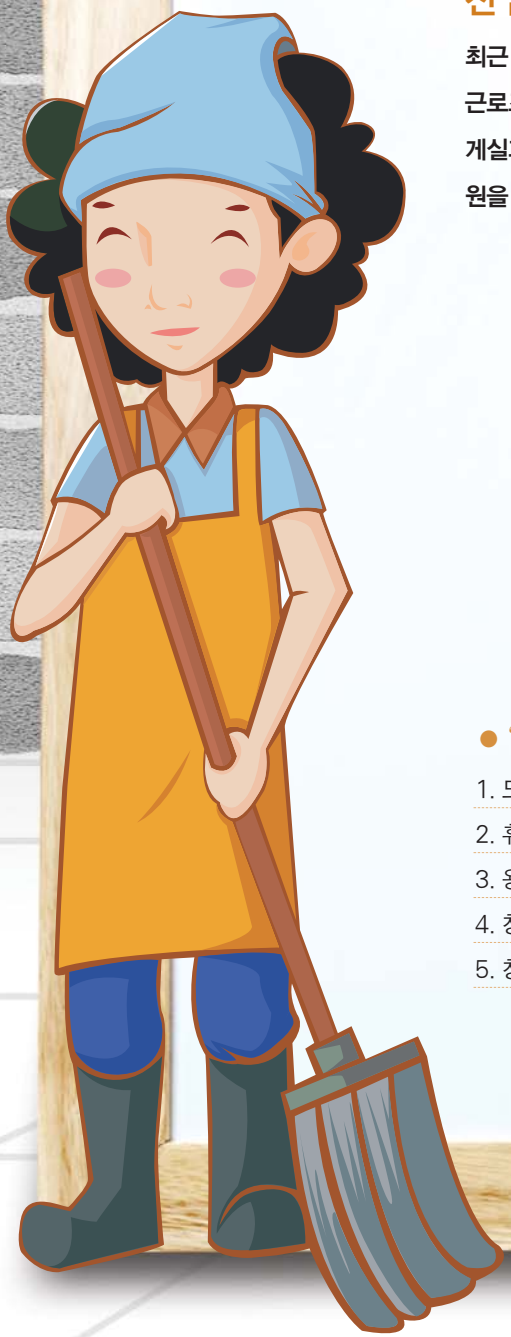
숲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 그리고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위기극복의 해결책으로서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해 정한 것이다. 숲은 식량과 의약품, 깨끗한 물의 원천이며 우리에게 휴식처를 제공한다. 또 생물다양성 보전과 물 공급, 홍수 조절, 산사태, 사막화 방지 등 광범위한 환경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이처럼 숲은 지구의 기후와 환경의 안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때문에 전 세계 70억 인구가 생존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숲은 꼭 필요하다.

숲의 보호와 더불어 이제는 임업재해예방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우리가 숲을 가꾸는 데는 우리의 땀과 노력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은 표준화되고 시스템화되면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천재지변을 제외한 98%의 사고는 우리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

현재 임업재해예방을 위해 '임업재해 반으로 줄입시다' 라는 슬로건 아래 안심일터 만들기 브랜드 사업을 하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을 주축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림청, 지자체, 산림조합 등이 힘을 합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기술지원, 합동점검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임업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성과 효율성 우선에서 '안전제일' 로, 대충대충 빨리빨리에서 '조심조심' 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다.

올 식목일에 인근 야산에 나무를 심고 명찰을 달아 주었다. 숲을 가꾸는 모든 사람의 안전, 숲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모두를 생각하며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주기를 기원한다.

청소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적극 나선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청소용역 근로자 파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소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사업장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청소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 '청소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

1. 도급사업주가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에 협조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시행
2.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 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통해 사업장당 최대 3억 원 지원
3. 용역업체 교체 시 근로자 고용안정 지도
4. 청소용역업체 점검 정례화
5. 청소용역업체 사회적 기업 전화 유도 방안 검토

고용노동부가 청소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4월 5일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 사업주가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청소용역업체 점검을 정례화하고, 고용안정을 지도하는 등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지난 1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청소용역업체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청소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소용역업체의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를 통해 사업장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소용역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청소용역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최근 청소용역업체 991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점검대상의 88.2%(874개소)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근로조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임금 ·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도 280개소(28.3%)에 달했다.

점검과 함께 실시한 청소용역업체 1,011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청소용역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최저 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고, 148곳(16.1%)에서는 샤워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용역업체가 바뀔 경우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23%나 돼 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 진정 다수 제기 사업장, 올해 초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등 1천 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청소용역업체 점검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독일 산재보험조합(DGUV) 국가별 산업안전보건 추진전략 소개

독일 산재보험조합(DGUV)이 주관한 산업안전보건 2차 전략회의에서 국가별 산업안전보건 추진전략이 소개됐다.

독일은 'Joint German OSH Strategy' 이란 전략으로 안전보건(OSH)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와 향상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능력유지 및 강화, 공중보건지원, 사회보험시스템의 부각, 기업경쟁력 증진 또한 포함하고 있다. 독일은 이 추진 전략을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공동수행, 안전보건 담당기관과 산재보험기금 간의 협조체제 향상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수립을 통해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 제공과 WSH(Workplace Safety Healthy) 분야에서 국격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비전달성을 위해 먼저 2018년까지 10만 명당 사망률을 1.8%로 줄일 수 있도록 재해율 감소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기업에 WHS활동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싱가포르가 WSH분야에서 전문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진보적이고 확산적인 안전보건문화 활동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전략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는 위험예방시스템을 통해 사망재해, 산업재해, 직업병을 감소시키고 공공보건의 보존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추진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 및 질병 감소, 인식증대 및 역량강화, 안전보건에 관한 개인 책임 개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집중적인 예방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브라질은 사망재해 및 영구적 장애 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역학조사 활동, 재정 인센티브 지급 관련 수행사항을 펼치고 있다. 근로자 건강증진을 전국적 네트워크 및 근로자 보건을 위한 정보센터 구축, 건설업과 운송업 분야에서의 시범사업 수행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 검토 및 개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기반 마련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유럽 산업안전보건청(EU-OSHA) 유럽 운수업 안전보건실태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유럽 산업안전보건청(EU-OSHA)은 기존에 발표된 통계자료 및 연구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유럽 25개국 운수업 근로자들에게 노출된 위험요소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 25개 국가의 운수업 근로자 수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육상 · 해상 · 항공 업종 등 600만 명에 달한다. 또한 유럽연합(EU) 경제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운수업에 속하는 사업장 대다수는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지만 항공운송업과 철도운송업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업은 남성 근로자가 많았지만 갈수록 여성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운수업 근로자 중대사고의 20%는 운전자의 피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는 운수업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근로일수가 다른 업종의 종사자보다 길기 때문이다. 기업마다 재고량을 최소화하고 필요시마다 적은 양의 물품을 높은 빈도로 배달하면서 업무강도와 양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불면증 · 만성피로 · 소화장애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관련 도로 교통사고의 경우, 낮보다 통행차량의 수가 훨씬 적은 밤에 전체 사고의 절반가량(45%)이 발생하고 있었다. 야간근무 등 특수 근무시간에 일하는 여성 근로자는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운수업 근로자는 장시간 앉거나 서 있는 자세를 취하다 보니 근골격계질환에 취약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 외 위험요소로는 단독 근무, 불규칙한 근무시간, 가중 업무 등으로 인한 사회 심리학적 요인과 중량물 취급, 유해물질 취급 등의 물리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반복적인 단순작업, 소음, 배기가스, 유기혼합물 노출 등도 근로자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사고발생률을 높인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었다.

〈출처〉 http://osha.europa.eu/en/publications/reports/transport-sector_TERO10-001ENC/view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서울디자인고등학교와 청소년 산재예방 업무협약체결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조철호 · 사진 좌측)은 지난 4월 18일 서울디자인 고등학교와 청소년의 산재예방과 근로조건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과 서울디자인고등학교는 매년 정기적으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조철호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과 임명섭 서울디자인고등학교장은 청소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상에 공감하며, 우선 오는 5월 11일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근로기준에 대한 기본지식, 최저임금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산재예방 및 근로조건보호를 위한 기본교육프로그램을 관내 전문계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프로그램의 내용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전남동부지도원

율촌산단 안전관리협의회 구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도원(원장 임대식)은 지난 4월 7일 율촌산단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13개 산업단지 중 사업장 신 · 증설 및 재해자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율촌산단에 대해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 협의회와 공동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동종 업종의 재해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현황, 율촌산단의 재해 예방대책, 안전관리협의회 운영 등과 2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갈 회장(SPP율촌에너지 이종한 부장)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해예방 활동 계획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전남동부지도원은 협의회에 캠페인, 기술자료, 재해다발유형 OPL(One Point Lesson),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금천구청과 공공사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손두익)는 지난 4월 21일 서울시 금천구청과 공공사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0년도 서울본부관내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전체 재해의 70%인 201건이 지자체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사업 맞춤형 재해감소 프로그램을 금천구청에 정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공단은 공공사업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컨설팅, 기술지원, 교육, 자료 제작 · 보급, 협의회 운영 등 공공사업 맞춤형 재해감소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금천구청은 공단이 제공하는 각종 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고 전파해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손두익 본부장은 "공공사업 맞춤형 재해감소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도원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퍼즐 맞추기' 행사 개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도원(원장 정성훈)은 지난 4월 15일 KORAIL 서울역사 1층 대합실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퍼즐 맞추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청렴행사로 공단의 '더불어 함께하는 친근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청렴퍼즐을 맞춘 시민에게는 '청렴화분'이 기념품으로 증정됐다. 이 화분에 있는 '청렴 메시지콩'은 자라면서 '청렴한 세상'이라는 문구가 콩에 새겨지게 된다. 서울북부지도원은 이러한 청렴메시지를 통해 범국민 청렴의식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캠페인은 서울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아 청렴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반 시민에게 알린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보육정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홍경표)는 지난 4월 15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 보육정보센터와 보육시설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보육시설 재해예방 재정지원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홍경표 대구지역본부장은 "그동안 공단은 안전한 일터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영단체 등과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 왔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행정력과 전문기술력을 접목해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북부지도원
'푸른숲 가꾸기 식목행사' 개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원장 성수원)은 지난 4월 5일 경북 칠곡군 소재 유학산 일대에서 김천시 및 고용노동부와 함께 식목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북북부지도원 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숲을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60그루의 소나무와 동백나무를 심고 재해 없는 사업장을 염원하는 안전캠페인을 함께 전개했다.

경남동부지도원
'안전한 도시 만들기 노·사·민·정 무재해 결의대회' 실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도원(원장 이덕재)은 지난 4월 19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합동으로 김해시 신어산에서 안전한 도시 만들기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사단체, 전문단체, 안전보건대행기관, 정부기관과 함께 무재해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무재해 결의대회에는 이정조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을 비롯해 120명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안전선언결의문'을 통해 산업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신어산에서 '무재해 기원 산행'의 시간을 가지며, 안전문화 정착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기도 했다.

2011년도 3월 안전인증 현황

【보호구】

· 안전모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용량, 등급	인증일자
안전모	11-AV2CQ-0009	㈜코브인터내셔날	COV-HF-005	ABE	11-03-29

· 안전화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용량, 등급	인증일자
안전화	11-AV2CR-0028	우성상사	HW 6	보통작업용(중단화)	11-03-31
	11-AV2CR-0029	우성상사	알파카 7A	경작업용(중단화)	11-03-31
	11-AV2CR-0030	우성상사	LW 8	경작업용(장화)	11-03-31
	11-AV2CR-0031	우성상사	HW 8-1	보통작업용(장화)	11-03-31
	11-AV2CR-0032	㈜트렉스타	TS 6-101	보통작업용(중단화)	11-03-31
	11-AV2CR-0033	㈜트렉스타	TS-507	보통작업용(단화)	11-03-31
	11-AV2CR-0034	㈜트렉스타	UK-401	보통작업용(단화)	11-03-31
	11-AV2CR-0035	㈜트렉스타	TS 3-202	보통작업용(단화)	11-03-31
	11-AV2CR-0036	주식회사 베스트	KC-403	경작업용(단화)	11-03-31
	11-AV2CR-0037	한스산업㈜	HS-202-AIR	보통작업용(단화),미끄럼방지	11-03-31
	11-AV2CR-0038	한스산업㈜	HS-51-A 포커스4	보통작업용(단화),미끄럼방지	11-03-31
	11-AV2CR-0039	한스산업㈜	HS-34-1	보통작업용(단화),미끄럼방지	11-03-31
	11-AV2CR-0040	한스산업㈜	HS-38-2 레인보우4	보통작업용(단화),미끄럼방지	11-03-31
	11-AV2CR-0041	한스산업㈜	HS-38-3 레인보우6	보통작업용(중단화),미끄럼방지	11-03-31
	11-AV2CR-0045	㈜영풍제화	YPI-844	중작업용(장화)	11-03-31
	11-AV2CR-0042	한스산업㈜	HS-28-1 비계화	경작업용(중단화)	11-03-31
	11-AV2CR-0043	한스산업㈜	HS-34SC 피카소	보통작업용(단화)	11-03-31
	11-AV2CR-0044	한스산업㈜	HS-03헌터	보통작업용(중단화)	11-03-31
	11-AV2CR-0046	㈜경도상사	EW-405	보통작업용(단화)	11-03-31
	11-AV2CR-0047	㈜경도상사	EW-601	보통작업용(중단화)	11-03-31
	11-AV2CR-0048	㈜세몽나이스	4NH	보통작업용(단화)	11-03-31
	11-AV2CR-0049	㈜세몽나이스	6NH	보통작업용(중단화)	11-03-31
	11-AV2CR-0050	㈜세몽나이스	4NH-IS	보통작업용(중단화)	11-03-31
	11-AV2CR-0051	㈜세몽나이스	6NH-IS	보통작업용(중단화)	11-03-31
	11-AV2CR-0052	㈜세몽나이스	4NH-IS II	경작업용(단화)	11-03-31
	11-AV2CR-0053	㈜세몽나이스	6NH-IS II	경작업용(중단화)	11-03-31

· 안전대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용량, 등급	인증일자
안전대	11-AV2CY-34	㈜성안세이브	SABU-1004	벨트식, 1개걸이용	11-03-10
	11-AV2CY-35	㈜성안세이브	SABU-1003	벨트식, 1개걸이용	11-03-10
	11-AV2CY-36	㈜성안세이브	SAH-1004	안전그네식, 1개걸이용	11-03-10
	11-AV2CY-37	㈜성안세이브	SAH-1005	안전그네식, 1개걸이용	11-03-10
	11-AV2CY-38	㈜코브인터내셔날	COV-CH-2000110-S	벨트식, 1개걸이용	11-03-10
	11-AV2CY-39	국제안전물산㈜	K131-52	벨트식, 1개걸이용	11-03-10
	11-AV2CY-40	국제안전물산㈜	K021-22	벨트식, 1개걸이용	11-03-10
	11-AV2CY-41	국제안전물산㈜	K055-11	안전그네식, 1개걸이용	11-03-10
	11-AV2CY-42	국제안전물산㈜	K021-22	벨트식, 1개걸이용	11-03-10
	11-AV2CY-43	스왈록아시아㈜	SJS-CS	벨트식, 1개걸이용	11-03-10
	11-AV2CY-44	유신기업사	YS108-1	벨트식, U자걸이용	11-03-10
	11-AV2CY-45	유신기업사	YS108-3	벨트식, U자걸이용	11-03-10
	11-AV2CY-46	㈜지엔에스테크	PB-201SW	안전그네식, 1개걸이용	11-03-10
	11-AV2CY-47	프로식스㈜	PRO-TA-12	벨트식, 1개 걸이용	11-03-23
	11-AV2CY-48	밸티코	BTB-03	벨트식, 1개 걸이용	11-03-23
	11-AV2CY-49	㈜코브인터내셔날	COVD-F-101B-AL2	그네식, 1개걸이용	11-03-28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용량, 등급	인증일자
안전대	11-AV2CY-50	㈜코브인터내셔날	COV-B-4000104-AL-S	벨트식, 1개걸이용	11-03-28
	11-AV2CY-51	㈜코브인터내셔날	COVD-F-101B-AL	그네식, 1개걸이용	11-03-28
	11-AV2CY-52	㈜코브인터내셔날	COVD-F-101STA	그네식, 1개걸이용	11-03-28
	11-AV2CY-53	국제안전물산㈜	K022-41	벨트식, 1개걸이용	11-03-28
	11-AV2CY-54	㈜지엔에스테크	PB-203aZ-1	그네식, 1개걸이용	11-03-28
	11-AV2CY-55	스왈록아시아㈜	COLOCK BJA-1	그네식, 1개걸이용	11-03-28
	11-AV2CY-56	스왈록아시아㈜	COLOCK AS	그네식, 1개걸이용	11-03-28
	11-AV2CY-57	스왈록아시아㈜	COLOCK HDD-1	그네식, 1개걸이용	11-03-28
	11-AV2CY-58	㈜성안세이브	SAB-1005	벨트식, 1개걸이용	11-03-28
	11-AV2CY-59	㈜성안세이브	SAB-1007	벨트식, 1개걸이용	11-03-28
	11-AV2CY-60	㈜성안세이브	SAB-1008	벨트식, 1개걸이용	11-03-28

· 방진마스크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용량, 등급	인증일자
방진마스크	11-AV2CT-0022	주원산업	JD-J01	안면부여과식 1급	11-03-03
	11-AV2CT-0023	주원산업	JD-J03	직결식반면형 1급	11-03-03
	11-AV2CT-0024	주원산업	TA9000+HX210	직결식반면형 1급	11-03-03
	11-AV2CT-0025	주원산업	TA9000+HX230	직결식반면형 특급	11-03-03
	11-AV2CT-0026	주원산업	SY 2020	안면부여과식 2급	11-03-03
	11-AV2CT-0027	주원산업	SY 1500	안면부여과식 1급	11-03-03

· 방독마스크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용량, 등급	인증일자
방독마스크	11-AV2CU-0001	㈜이지스	"TA9000+GX401"	저농도, 유기화합물	11-03-17
	11-AV2CU-0002	브케이알	VKR-GM01	최저농도, 유기화합물	11-03-17

· 송기마스크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용량, 등급	인증일자
송기마스크	11-AV2CV-0001	㈜경도상사	KD-510 도장용	에어라인마스크, 일정유량형	11-03-03
	11-AV2CV-0004	국제안전물산㈜	KAD-004	에어라인마스크, 일정유량형	11-03-29
	11-AV2CV-0005	국제안전물산㈜	KAD-005	에어라인마스크, 일정유량형	11-03-29
	11-AV2CV-0006	국제안전물산㈜	KAD-006	에어라인마스크, 일정유량형	11-03-29
	11-AV2CV-0007	국제안전물산㈜	KAD-007	에어라인마스크, 일정유량형	11-03-29

· 보안경

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형식, 모델	용량, 등급	인증일자
보안경	11-AV2CZ-38	패션라인㈜	DG-8000S2	용접용(#2.0)	11-03-08
	11-AV2CZ-39	패션라인㈜	DG-8000S3	용접용(#3.0)	11-03-08
	11-AV2CZ-40	오토스테크㈜	C-706B(#2)	용접용(#2)	11-03-15
	11-AV2CZ-41	오토스테크㈜	C-706B(#1.2)	용접용(#1.2)	11-03-15
	11-AV2CZ-42	오토스테크㈜	C-706B(#3)	용접용(#3)	11-03-15
	11-AV2CZ-43	오토스테크㈜	M-632BS(#1.7)	용접용(#1.7)	11-03-15
	11-AV2CZ-44	오토스테크㈜	M-632BS(#2)	용접용(#2)	11-03-15
	11-AV2CZ-45	오토스테크㈜	B-618B(#1.7)	용접용(#1.7)	11-03-15
	11-AV2CZ-46	오토스테크㈜	B-618B(#2)	용접용(#2)	11-03-15
	11-AV2CZ-47	오토스테크㈜	B-618B(#3)	용접용(#3)	11-03-15
	11-AV2CZ-48	오토스테크㈜	M-612BS(#1.2)	용접용(#1.2)	11-03-15
	11-AV2CZ-49	오토스테크㈜	M-612BS(#1.4)	용접용(#1.4)	11-03-15
	11-AV4CZ-50	Aswan International Corporation	Virtua Gray	자외선(#3.0)	11-03-15
	11-AV4CZ-51	Aswan International Corporation	Virtua Sport Gray	자외선(#3.0)	11-03-15
	11-AV4CZ-52	Aswan International Corporation	Virtua Sport Amber	자외선(#1.2)	11-03-15
	11-AV4CZ-53	Aswan International Corporation	BX Blue Amber	자외선(#1.2)	11-03-15
	11-AV4CZ-54	All-logic Int.Co.,LTD	Virtua V4 Gray	자외선(#3.0)	11-03-15

Examination Info

✻ 안전보건공단 경영방침

건강한 일꾼 · 안전한 일터 · 튼튼한 사회

○ 과학화(선택과 집중)

○ 허브화(협력과 지원)

○ 분권화(자율과 창의)

○ 열린문화(소통과 배려)

✻ 고객불편신고센터

TEL(국번없이)1644-4544 FAX1644-4549

http://www.kosha.or.kr/고객참여

✻ 부정 · 비리 신고센터 운영

우리공단은 고객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부정 ·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불친절하고 권위적이거나 부정 · 비리에 관련된 행동을 하였을때 아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면 겸허한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설치장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실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우편번호 403-711)

○ 전 화 : (032) 5100-732~735

○ 저희 공단 감사실 외에 지역본부장실 및 지도원장실도 부정 · 비리 신고센터입니다.

KOSHA 본부 · 산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032-5100-500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032-5100-761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032-510-0935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9-6 유한양행빌딩 14,15층	02-828-1600
서울북부지도원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길 5(봉래동1가 10) 우리빌딩 7,8층	02-3783-8300
강원지도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대로 103(온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04
강릉산업안전보건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1001) 강릉시청 15층	033-655-1860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1486-49	051-520-0510
울산지도원	울산광역시 남구 돗질로 180(달동 615-8) 국민은행빌딩 2,4,5층	052-226-0500
경남지도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로 159(용호동 7-3)	055-269-0510
경남동부지도원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석산리 1440-1) 양산노동합동청사 4층	055-371-7500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동인동2가 50-3) 호수빌딩 19,20층	053-6090-500
경북북부지도원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4길 7(임수동 92-60)	054-478-8000
경북동부지도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대도동 124-4) MPZONE빌딩 1~4층	054-271-2014
경인지역본부	인천시 서구 한빛로15(가정동 491지)	032-5707-200
경기남부지도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 511(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층	031-259-7149
경기북부지도원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1층	031-841-4900
경기서부지도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길 42(고잔동 729-2) 센트럴시티웨딩홀 2층	031-4817-599
경기동부지도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쇳골로 17-3(금곡동 106-2) 소곡회관 4층	031-785-3300
부천지도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3 대신프라자 3층	032-680-6500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31-14(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빌딩 8,9층	062-949-8700
전북지도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 1가 807-8) 노동부 종합청사 3,4층	063-240-8500
전남동부지도원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 중앙로 72(선원동 1285)	061-689-4900
제주지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95(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4층	064-797-7500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229-60(문지동 104-7)	042-620-5600
충북지도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3로 12(가경동 1171) 한국통신빌딩 3층	043-230-7111
충남지도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25번지 미래시티빌딩 5층	041-570-3400

Quiz Quiz 다른부분찾기

아래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5곳을 찾아 동봉된 〈독자엽서〉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때에는 주소와 연락처 이메일을 꼭 남겨주세요.

2011. 05

설 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 유효기간
2011.5.1~2013.4.30

인천계양우체국 승인
제40042호

보내는 사람

이 름 :

주 소 :

전 화 :

e-mail :

□□□-□□□

2011. 05

안전보건

받는 사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교육미디어실 〈고객평가〉 담당자 앞

4 0 3 - 7 1 1

2011. 05

독 자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 유효기간
2011.5.1~2013.4.30

인천계양우체국 승인
제40042호

보내는 사람

이 름 :

주 소 :

전 화 :

e-mail :

□□□-□□□

2011. 05

받는 사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교육미디어실 정기간행물 담당자 앞

4 0 3 - 7 1 1

●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안전보건자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본 설문지에 기입된 내용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본 설문지를 복사하여 Fax(032-502-0049)로 송부하셔도 됩니다.

본 자료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디자인 · 편집	○	○	○	○	○
내용구성	○	○	○	○	○
전반적 만족도	○	○	○	○	○

귀하께서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업종
- ○ 제조업
- ○ 건설업
- ○ 임업
-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건물종합관리업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 교육서비스업
- ○ 도 · 소매업
- ○ 음식업
- ○ 기타산업

규모
- ○ 5인미만
- ○ 5~49인
- ○ 50~99인
- ○ 100~299인
- ○ 300인 이상

본 자료가 귀하의 재해예방활동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아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 경영층 ○ 안전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 근로자 ○ 기타

● 월간 '안전보건'에 대한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의 소리

⊙ 이번 호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기사와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월간 〈안전보건〉을 읽고 난 소감이나 의견을 알려주세요.

Quiz Quiz 다른부분찾기

2011년 4월호 당첨자 명단

홍성걸 – 충북 제천시 남천동
강현숙 – 인천시 연수구 연수3동
박수흠 – 부산시 북구 화명3동
권오현 – 전남 통영시 도남동

지난호 정답

조심조심 코리아

국민여러분!

추천해주세요 산재예방 달인

산재예방 달인이란?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숨은 공로자를 매월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추천방법

인터넷 또는 우편(E-mail) 접수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추천대상

남다른 소신과 열정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신 분
※ 안전보건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신 분

기간 및 포상

- 연중 수시 접수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패를 수여
  ※ 산재예방유공자포상(매년 7월)시 가산점

문 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산재예방정책과(전화 02-6922-0922, 092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춘곤증을 예방할 수 있는

Health up 스트레칭

1 상체 스트레칭

① 의자 끝에 앉아서 두 손을 깍지 낀다.

② 허리를 세우고 상체를 최대한 늘려준다.

③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5-1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다.

④ 호흡을 멈추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다리 스트레칭

① 의자 끝에 앉아서 다리를 뻗어준다.

② 천천히 상체를 숙여서 양 발끝을 잡아 준다.

③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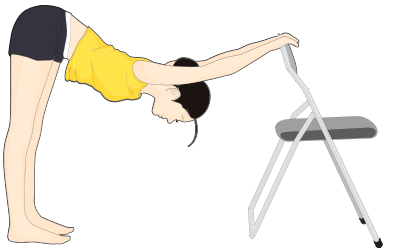
④ 의자는 바퀴가 달리지 않은 것을 활용한다.

3 목 스트레칭

① 의자에 앉아 등을 세우고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 껴서 잡아준다.

②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목을 앞으로 숙여 준다.

③ 최대한 내린 상태에서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4 어깨 스트레칭

① 의자 뒤에 가서 의자의 등받이를 잡고 선다.

② 두 손을 고정하고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인다.

③ 최대한 내려간 지점에서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④ 의자는 바퀴가 달리지 않은 것을 활용한다.

www.kosha.or.kr

조심조심 코리아

전원차단이 안전합니다

기계정비 작업 시 꼭 지켜야 할 3원칙

기계전원 차단

잠금장치 설치

표지판 설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심일터'

374개의 노·사·민·정 관련기관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산업재해 없는 안심일터, 좋은 일터 만들기의 시작입니다.
안심일터 추진본부는 중앙 및 16개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안전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보건 제도개선, 교육, 범국민 캠페인 등의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추진본부 참여기관〉 ⊙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산림청 ⊙ **노사단체**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합회, 중소기업중앙회 ⊙ **유관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보호구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대한산업안전협회 ⊙ **직능단체** : 대한건설협회, 건설안전임원협의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대한영양사협회
〈지역추진본부 참여기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대전,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지역 추진본부 등 16개 광역시도의 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등 345개 기관 참여

발행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등록 인천 라 01042(1989.4.25) | 제3종 우편물 나급인가(90.11.28) | 제23권 5호 | 통권 261호 | 2011.5.1 | 매월 1일 발행